

공짜 내세운 '항의 꼼수'



메트로 2015년 5월 11일 월요일 제3212호 www.metroseoul.co.kr



손흥민 4경기째 무득점



지난 9일 제주국제공항 보세구역 안에 있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 바로 옆에 세워진 구찌의 광고판 앞을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합성

“제주여행객은 호구” JDC면세점

제주도내 내국인 전용 면세점인 JDC면세점의 주요 인기 상품의 판매 가격이 해외 직접 구매(직구)를 통한 온라인 쇼핑물보다 높게 책정돼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DC면세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이사장 김한욱)가 운영하며 수익금은 제주도 개발 사업에 쓰인다. 공기업 성격을 띠는 면세점이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세에도 주요 인기 판매 상품의 가격을 직구 상품보다 높게 책정하며 내국인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JDC인터넷면세점의 품목별 판매 1~2위 상품의 가격을 주요 온라인 쇼핑물 판매 가격과 비교한 결과 JDC면세점 상품의 가격이 모두

일부 인기 상품, 해외 직구·쇼핑물보다 최대 두배 이상 비싸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베스트 샵에서 화장품 판매 1위에 랭크된 수입 화장품인 '키엘 울트라 페이스 크림 125ml'의 면세점 판매 가격은 61 달러에서 10% 할인이 적용된 54.9 달러(5만9650원)에 판매중이다. 이 상품은 옥션에선 5만4460원, 11번가에선 5만79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화장품 판매 2위인 '디올 립 글로우'의 면세점 판매 가격은 30 달러(3만2590원). 같은 상품의 온라인 쇼핑물 판매가는 최대 1만원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옥션 2만860원, G마켓 2만3700원, 11번가 2만4000원, 티몬 29900원 등이다.

향수 판매 1위에 랭크된 '불가리

옵니아 아메시스트 65ml' 가격은 최대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 면세점 판매가는 78 달러(8만4750원). 11번가와 G마켓 특가전을 통해서 각각 2만6000원, 3만35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의 인터넷쇼핑물에서도 각각 8만790원, 8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계 판매 1위인 여성용 메탈 시계 '마크바이제이콥스 MBM3198' 가격도 최대 5만원 가량 차이났다. JDC면세점 판매가는 206달러에서 10% 할인된 185.4 달러(20만1450원). 11번가 판매가는 14만8000원이다. 롯데백화점 인터넷쇼핑물 판매 가격도 27만원에서 26%할인된 19만8500원

으로 JDC면세점보다 저렴했다.

잡화 판매 1위인 '루이까또즈 솔더백(HG1NI09FA0TA)'은 3만원 가량 가격 차이가 났다. JDC면세점 판매가는 35만5300원에서 10% 할인된 31만9770원. 롯데백화점 인터넷쇼핑물 판매가는 48만8000원에서 40% 할인된 29만400원이다.

면세점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돼 일반 매장보다 20~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다. 직구 상품은 15만 원까지, 미국발 상품은 한미 FTA에 따라 200 달러까지 관세를 물지 않는다. 루이까또즈 솔더백 직구 상품이 관세를 내는 것을 감안하면 같은 JDC면세점 상

품의 가격이 훨씬 비싼 셈이다.

한편 JDC가 제주공항과 제주항에서 운영 중인 내국인 면세점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3666억원, 영업이익은 1081억원. 전년 대비 각각 6.3%, 9.3% 늘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화장품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38.7%에 달했다. 이어 패션잡화(15.4%), 주류(11.9%), 담배(7.3%), 향수(6.4%) 순이었다. 올해는 매출 4345억원, 영업이익 1300억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JDC면세점의 수익금은 제주도 개발을 위해 쓰게 돼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외국인도 아닌 내국인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예진기자 green@metroseoul.co.kr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드 사봤자... 북한 SLBM 위협에 속수무책

사드 포드 한두대는 '헛돈' 쓰는 꼴... 천문학적 비용에 다수 도입도 '비현실적'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방어수단으로 떠올랐던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마저 무력화될 전망이다. 북한이 지난 9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극성-1' 미사일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초기개발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이 SLBM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실전배치할 경우 사드의 레이더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북쪽의 육상은 물론이고 서해, 동해, 남해 등 전 방위를 감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사드를 도입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야기다.

10일 레이더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도입을 추진하는 사드의 탐지레이더는 지상 설치 레이더다. 수중에서 발사되는 SLBM에 대응하기 위한 레이더가 아니다. 또 사드의 탐지레이더인 ANTPY 2는 엑스밴드라고 불리는 아주 파장이 짧은 레이더로 아주 작은 물체까지 미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요격용이라 설치된 포대 앞만 탐지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어느 한 방향으

로 레이더를 고정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전 방위를 다 감시하기 위해서는 각 방위마다 따로 설치해야 한다. 사드 포대 하나를 도입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드 포대를 몇 대나 도입해야 하는지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범위와 관련해 공군 출신의 한 레이더 전문가는 "레이더의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해도 사드 레이더의 한계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레이더 안테나의 성능은 안테나가 에너지를 어느 각도로 집중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각도를 좁힐수록 탐지 성능이 향상된다. 사드 레이더의 탐지각도를 키울수록 탄도미사일 방어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 포대 수를 줄이는 모험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드 포대의 천문학적인 액수를 생각하면 사실상 사드 배치는 물 건너간 상황이다. 현재 사드의 1개 포대 가격은 약 1조 5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예산 문제로 사드 포대 한두 대를 도입해서는 헛돈을 쓰는 꼴이다.

미군이 사드 포대를 도입한다면 한국이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지만 보통 한국과 주한미군 사이의 무기구입은 먼저 요구하는 쪽이 비용을 부담해왔다. 예외적으로 미군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도 북한의 SLBM 방어에 필요한 만큼의 수량을 도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국방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2020년 초반을 목표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나섰지만 사드와 마찬가지로 단점이 존재한다. 한마디로 현재 한국은 북한의 SLBM 위협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정윤아기자 yoonal@metroseoul.co.kr

북한은 지난 9일 전략잠수함의 탄도탄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노동당 제1비서)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개발완성된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신문에 공개된 탄도탄의 모습. 붉은색 커다란 글씨로 '북극성-1'이라고 적혀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탄도탄을 'KN-11'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입영신청 탈락' 제보를 받습니다

☞ 제보하실 곳 yoonal@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은 현행 입영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입영신청을 냈지만 계속된 탈락으로 학업이나 생계 계획을 세우기 힘든 분들, 막연한 기다림에 청춘을 허비하는 분들, 영문을 모르는 탈락으로 심적 고통을 겪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日, 中 앞마당 '남중국해' 진출

일본이 중국의 앞마당인 남중국해를 넘보기 시작했다. 오는 12일 필리핀과 사상 첫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 대중국 해양 봉쇄를 결의한 미·일 신통맹의 결과다. 중국과 필리핀과의 해양 분쟁에서 이전까지는 미국만이 나섰다.

10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과 필리핀, 양국 해군은 12일 필리핀 마닐라만과 수빅만 사이 남중국해에서 돌발상황에 대비한 공조체제 구축 훈련을 실시한다. 일본 구축함 2척, 필리핀 프리깃함 1척과 헬리콥터 등이 참가한다.

앞서 지난 6일 양국의 해군은 필리핀 해안에서 해적 퇴치와 무기밀매, 인신매매 단속 등을

위한 첫 합동훈련을 벌였다. 오는 14일에는 수색과 구조를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훈련은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해양봉쇄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지난 4월 필리핀과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 훈련을 실시, 대중국 봉쇄를 노골화했다.

중국을 2010년 3월 미국정부에게 남중국해가 영토의 완성성(完整性)에 직결되는 '핵심이익'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중국에게 핵심지역이란 국가의 존망과 직결돼 협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이다. 대만, 티베트, 신장위구르 자치구 등이 대표적이다. /송병희기자

러시아 2차대전 전승절 참가한 시진핑 '돈잔치'

미국, 유럽, 일본 정상이 러시아 2차대전 승전 70주년 행사에 불참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생긴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과 본격적으로 손을 잡았다.

지난 8일(현지시간) 오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상대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지역 경제협력 구상에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는 현재 구소련권 경제공동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을 이끌고 있고 중국은 유럽-아시

아를 잇는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추진 중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경제협력 관련 합의문이 이뤄졌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수백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서부노선' 가스 공급 계약이다.

양국의 국영에너지 회사인 가스프롬과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은 이날 두 정상의 승인을 거쳐 '서부노선'을 통한 대중 가스공급 프로젝트의 기본조건에 합의했다.

시 주석은 또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중부 도시 카잔을 잇는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1조 루블(약 2

조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중국도 이번 회담으로 챙긴 것이 적지 않다는 해석이 많다. 우선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영유권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으로부터 '포위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중·러 관계의 격상을 통해 '반격용 포석'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시 주석의 최고 관심사인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과의 이번 만남은 또 하나의 '지렛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윤아기자 yoonal@



서울역고가 인조잔디 위 붐소풍 '서울역고가 시민개방행사'가 열린 10일 서울 만리재에서 명동으로 이어지는 서울역고가 위 400m 평지 구간에 인조잔디와 노란 파라솔이 설치돼 시민들이 붐소풍을 즐기며 고가를 오가고 있다. 이날 한편에서는 고가 개방행사를 반대하는 인근 남대문 상인들의 시위가 있었다. /연합뉴스

연말정산 환급법 오늘 넘기면 직장인 난리난다

통과하면 회사가 대신 재정산... 못하면 개인별 '벼락치기 환급 준비' 대란

연말정산 환급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직장인 사회에 난리가 날 판이다. 직장인 개개인이 '벼락치기' 환급 준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환급법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입양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는 자녀 입양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를 의결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약 이 법이 1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여 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져 국민에게 약속했던 5월 중 세액 환급을 못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이 직접 다시 신고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도 이날 '연말정산 보완 대책 지연 통과시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내고 "대부분 회사의 급여 지급일(25일)부터 역산할 때 최소한 11일 이전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원천징수 의무자로 연말정산 재정산을 맡는 기업이 프로그램을 개발·적용

하고,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입양 공제와 관련된 신청서를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 재정산 결과를 근로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작업도 거쳐야 한다. 각 직장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이를 근로자 각각의 월급 내역에 반영하게 된다. 대부분의 회사는 25일에 월급을 지급한다. 올해는 석가탄신일(25일) 연휴가 끼어 22일에 월급 지급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시간은 더욱 촉박하다.

더 큰 문제는 11일 개정안 통과가 지연돼 물리적으로 재정산을 할 수 없게 됐을 때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이달 말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회사는 연말재

연말정산 보완책 주요내용

	중진 (소득공제)	현행 (세액공제)	보완대책 (세액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 1명: 없음 - 2명: 100만원 - 3명 이상: 1명당 200만원	자녀 세액공제 제도로 통합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 - 3명 이상: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	- 1명: 현행 유지 - 2명: 현행 유지 - 3자녀부터 1명당 30만원 (10만원 추가)
6세 이하 자녀공제	100만원		2명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추가
출산·입양	자녀당 200만원		자녀당 30만원 신설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 (400만원 한도)	세액공제율 12%	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5%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모든 급여구간 50만원 (세액공제)	- 5,500만원 이하: 66만원 - 7,000만원 이하: 63만 - 7,000만원 초과: 50만	- 3,300만원 이하: 74만원 - 4,300만원 이하: 66~74만 - 5,500만원 이하: 66만 - 7,000만원 이하: 66만 - 7,000만원 초과: 50만
근로소득 세액공제율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30%	50만원 이하: 55% 50만원 초과: 30%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30%

정산을 할 수 없다. 개별 근로자가 일일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본인의 환

급계좌 정보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김서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대화하는 유승민과 이종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이종걸 신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첫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 두 사람은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합의를 존중한다며 비공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靑 “소득대체율 50%는 1700조원 세금폭탄”

“세금폭탄 아니라면 보험료 1인당 255만원 더 내야”

청와대가 5월국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며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도 가중시키므로 매우 신중해야 하고, 반드시 국민과 함께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10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5월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 브리핑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들의 논의조차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논의가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 세금폭탄을 피하고자 할 경우 “2016년 한해에만 34조5000억원, 가입자 1인당 255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일부 정치권의 주장처럼 지금 보험료를 1%만 올리더라도 미래 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부담을 지게 된다”며 “기금을 다 소진하게 되는 2060년부터는 보험료를 25.3%까지 올려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아들·딸들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로만 소득의 4분의 1을 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 1% 인상만으로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가능하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김 수석은 이 같은 반박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우선 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더 오랫동안 가입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 인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장기체납자나 미가입자로 인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수석은 먼저 공무원연금 해결이 우선이라며 “5월국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말정산 보완 법안과 누리과정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도 함께 당부했다.

/송병형기자 bhsong@

박지만 회장에 유서 남기고 노조간부 자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회장으로 있는 이지그룹 계열사 노조간부가 박 회장에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유서에는 박 회장에 노조를 탄압하는 경영 방식을 바꿀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지그룹 계열사인 이지테크의 양우권(50) 노조 분회장이 이날 아침 광양시 자택 인근 공원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양 분회장은 목을 매기 전 양동운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변을 비판한 자살로 추정되는 이유다.

이지테크는 포스코 협력업체다. 애초 노조 조합원이 50명가량이었지만 현재는 양 분회장만 남은 상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 /연합뉴스

황이다. 양 분회장은 2011년 4월 부당해고를 당했다. 이후 재판에서 승소해 지난해 5월 복직했지만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 분회장은 A4용지 3장 반 분량의 유서에서 박 회장에 노조 탄압 중단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하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병형기자

알림

도·시·군·구 지역본부장 모집

창간 13주년을 맞는 국내 최대, 유일 무료신문 메트로신문사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펼칠 지역별 책임인재를 모집합니다.

1.모집지역 : 도·시·군·구 별 1명(기존사업 병행가능)
2.모집조건 : 지역판 발행 및 광고사업 유경험자
3.주요사업 : 지역면 제작 및 배포
 - 본판(서울/수도권판) 내지면 해당지역면 제작
 - 수익률: 광고 및 배포대행 순수익
 - 세부사항 본사 내방 협의
4.서류접수 : 2015년 5월 15일 마감
 - 이력서, 자기소개서
5.문의 : 박성호부장 02)721-9861 · blue@metroseoul.co.kr



Incheon Airport Customs Uncovers Drugs – ‘Record Breaking Amount’

A record amount of drugs have been mailed to South Korea during the first three months of this year due to the brisk use of social networking services by dealers, customs authorities said Thursday. There were nearly 70 different kinds of drugs worth a total 4.6 billion won (\$4.2 million), an official of the service said. Between January and March of 2015, some 3.6 tons of drugs entered South Korea by mail, an astronomical figure compared to 5.4 kilograms logged in the same period last year, the Korea Customs Service said. The most common drug was Khat, a leafy green plant containing sti-



mulants that is cultivated in North Africa and the Arabian Peninsula. The people who brought it in were a 35-year-old Ethiopian woman and a 36-year-old American man. They thought that it would be easier to bring in the drugs through Korea Customs because of its strict conditions.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유란) 강사

인천공항세관 1분기 마약 적발 “역대 최대”

국제우편과 특송 등 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2015년 1분기 동안 화물을 이용해 밀반입된 시가 46억원 상당의 마약류 69종, 3.6t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게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마약적발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식물성 마약 ‘카트’(Khat)다.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등에서 주로 생산된다.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3월 국내로 밀반입된 시가 22억원 상당의 카트 3.6t을 압수했다. 국민 3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범인은 에티오피아 국적 A(35·여)씨와 미국인 B(36)씨다. 이들은 카트 잎을 문신에 사용하는 식물인 헤나로 위장해 한국으로 들여온 뒤 미국으로 밀수출하려 했다. 이들은 한국을 거치면 미국 반입이 쉬울 것으로 여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이 세관 검색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골목길상권 투자, 출구전략이 중요하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요즘 상가나 건물을 사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는 곳이 있다.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골목길상권이다. 젊은 소비층이 몰리고 유행과 이슈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보니 근린상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투자자에게도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소위 뜨기 시작하는 골목길상권의 점포나 소규모 건물을 투자할 때 가장 큰 장점은 기존의 유명 대형상권에 비해 투자부담이 적은 대신 매각차익이나 임대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골목길상권은 강남대로나 명동 같은 대형상권에 빌딩을 갖고 있다는 자부심보다 실속을 챙기려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하지만 유행에 민감한 골목길상권에 투자할 때는 진입전략(Entry Strategy)과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잘 세워야 한다. 이른바 ‘뜨는 골목길상권’ 만도 서울 시내에 20~30곳 가량 꼽히고, 인기 있는

골목길상권이 뜨고 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골목길상권인 신사동 가로수길이 시들해지는데 10년 정도 걸렸다면 최근 인기 있는 이태원 경리단길에 대한 과열 우려가 나오는 데는 채 3~4년도 걸리지 않았다.

확실한 매각 차익을 내려면 상권이 자리잡기 전에 진입해야 하는데 단독주택이나 근린상가를 골라 점포 임대엔 적합하게 리모델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상권에 어울릴 만한 업종을 고려해서 주목 받을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해야 임대하기 좋고 투자금 회수도 빨라진다.

골목길 상권은 주로 도시 재생 과정에서 특정 골목길을 중심으로 형성되다 보니 상권의 규모가 작은 편이다. 상권이 유명해지고 외부 투자자가 유입되면 금방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임대료 또한 급등한다. 다소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점포나 건물의 투자 수익률은 오히려 하락하기도 한다. 어쩔 수없이 임대

료를 올리게 되면 임차인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진다. 임대료가 급등하면 해당 상권의 투자 과열을 의심해봐야 한다.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가 입점하기 시작하면 경계할 필요가 있다. 골목길상권이 뜨기 시작할 때는 단독주택을 개조한 아기자기한 음식점과 차별화된 인테리어의 카페들이 들어서고 새로운 패션과 문화 아이템을 선보이는 디자이너숍 같은 가게들이 자리를 잡는다. 누구나 알 만한 프랜차이즈 점포가 대거 입점했다는 건 상권이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고 해당 상권의 미래 성장 가치에 대해서 따져보기 시작해야 한다.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도 비슷한 징후다.

입지가 양호한 골목길상권은 인기가 시들해진 뒤에도 고정 소비층을 유지하기도 하고 한번 시들해졌던 상권이 종전과 다른 콘셉트의 점포 개발로 다시 주목 받기도 한다. 하지만 매각차익과 임대수입을 고려한 골목길상권 투자를 원한다면 뜨는 골목길상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잘 결정해야 한다.

이재용의 삼성, 지주사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기지 수첩
송정훈
<산업부 기자>

삼성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체제가 1년을 맞으면서 그룹 지배구조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기존의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하려면 계열사 부실 전이, 국회의 삼성 겨냥 입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삼성은 지난해 삼성SDS와 제일모직을 상장하면서 순환출자 고리를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기·삼성SDI→제일모직으로 단순화했다. 문제는 이 부회장이 이 같은

기존 출자구조를 유지한다고 해도 여러 난관에 봉착한다는 점이다.

우선 순환출자는 한 계열사의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갤럭시S5의 부진으로 삼성전자 IM(IT·모바일)부문의 영업이익이 1조7500억원 대로 주저앉은 작년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5% 급감했다. 이런 경영위기는 삼성전자의 지분 7.21%를 보유한 삼성생명으로 전이될 수 있고 나아가 그룹 전체로 위기가 확산될 수도 있다. 실제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의 시가는 약 16조 원인데, 삼성생명의 자본총계는 작년말 22조2000억원 정도에 불

과하다. 삼성전자가 부실하면 삼성생명도 동반 부실화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또 삼성을 겨냥한 입법도 이 부회장의 고민을 키운다.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금융사의 비금융사에 대한 의견권이 축소되고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 한도를 제한하는 보험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유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순환출자 고리도 자연스럽게 깨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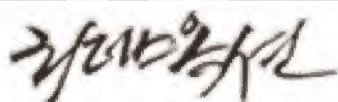
“삼성의 3세 경영체제에서는 불완전한 현 지배구조보다는 지주회사 체제를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삼성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경매 교육 & 현장교육

<평일반> 5월 27일 ~ 6월 18일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매주 수,목요일 저녁 7시 30분 ~ 10시 / 총 8강

<주말반> 5월 30일 ~ 6월 20일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 총 8강

법원경매 전문법인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 출구)

인사

-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입 > 건설정책국장 김경욱
- 미래창조과학부
△국장급 전보 > 과학기술정책국 미래인재정책관 이상학
- 국민안전처
△과장급 전보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서기관 이병철 > 안전정책실 안전기획과장 부이사관 유재욱
- 한국광물자원공사
△승진 > 경영관리처장 김명철 > 사업기술처장 이동섭 > 개발운영팀장 윤용진 > 국제협력팀장 정수영 > 선광기술팀장 이정미 > 투자기획팀장 서경환 > 역량강화실 부장 이성수 > 환경기술팀 부장 안상용
- 재향군인회

> 기획행정국장 부중배 > 홍보실장 겸 대변인 원태재 > 감사실장 이기용 > 경영본부장 현병택

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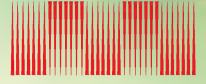
- ▲ 이극준 씨 별세, 최병석(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부사장)·병원스틱인베스트먼트 부회장)씨 모친상, 이희영(진양화성 관리부장)·전종철(포스코 PR실 과장)씨 빙모상 = 9일 오전 6시 4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2일 오전 10시 30분 ☎ 02-3410-3151
- ▲ 정금순 씨 별세, 김정행(대한체육회장)씨 모친상 = 10일, 포항시민전문장례식장, 발인 12일 ☎ 054-253-4444
- ▲ 김윤진씨 별세, 동수(MBN 충청지사장)·남수(더스토리북 대표)씨 부친상, 송인석(서

울 신대방성당 사무장)씨 빙부상, 전명천(방송작가)씨 시부상 = 9일 오후 4시, 서울 보라매병원 장례식장 4호실, 발인 11일 오전 6시 ☎ 02-870-2977

▲ 황귀암(전 경북부지사)씨 별세, 재우(사업)씨 부친상, 안건희(이노션월드와이드 대표이사)씨 빙부상 = 9일 오후 5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11일 오전 11시 ☎ 02-3010-2000

▲ 윤동주 씨 별세, 정화(KB국민은행 차장)씨 부친상, 양희진(KBS부산방송총국 보도제작부)씨 빙부상 = 9일 오전 2시, 시민장례식장 401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 30분 ☎ 051-636-4444

▲ 이병호씨 별세, 이동한(조선일보 총무국장)·권대영(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씨 빙부상 = 9일 오후 7시 40분, 세광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1일 7시 ☎ 055-545-4447



LOTTE WORLD MALL

롯데월드몰·타워, 당신에게 더 다가가겠습니다

시네마·아쿠아리움 5월 12일(화) 재개장

롯데월드몰·타워가 새로운 마음으로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간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되기보다
당신 마음속의 랜드마크가 되기위해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MALLING IN CULTURE



앤디 워홀 LIVE

세계가 사랑하는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을 만나다

일시: 2015년 5월 1일(금)~24일(일)
장소: 롯데월드몰



잠실 프린지 스테이지

젊은 아티스트들의
자유로운 열정이
잠실역 광장에서 펼쳐지다

일시: 매주 토요일, 일요일 16:00~17:30
장소: 잠실역 지하광장 프린지 스테이지



판타스틱 퍼레이드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환상적인 퍼레이드를
눈앞에서 즐기다

일시: 매주 토요일, 일요일 15시, 18시
장소: 잠실역 지하광장 및 롯데월드몰 일대

1억 웃돈 붙은 동탄2신도시 '즐거운 비명'

| 부동산 레이다 |

낮은 금리에 선납률 높아 KTX·GTX도 개통 앞둬

상업시설과 대단지가 뿔뿔하게 늘어난 동탄1도시를 거쳐 달려온 탓일까. 동탄2신도시는 한적하게만 느껴졌다. 넓게 펼쳐진 허허벌판 속에서 차량 내비게이션 역시 길을 헤매기 일쑤였다.

지난 8일 최근 분양 시장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를 방문했다.

이곳저곳에서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으나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단지 내 상가에는 수많은 부동산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부동산 점포 유리창에는 '전매'라고 적힌 종이가 쉽게 발견됐다. 초기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매물 광고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전경.

/LH 제공

역시 여럿 보였다. 점포 안에는 열 띠게 상담 중인 중개업자와 고객들이 있었다.

아직은 황무지에 가까운 동탄2신도시. 그러나 동탄 지역의 분양가는 높은 인기와 함께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다.

부동산 관계업자에 따르면 초기 동탄 분양가는 1000만원 대 초반 수준이었다. 우남건설 공급단지는 1007만원, 호반건설 단지는 1070만원 정도로 책정됐다. 포스코와 반도 건설 등 여러 건설사가 분양을 진행 중인 현재는 대개 건설업체의

평당 분양가가 1100만~1200만원 수준으로 맞춰지고 있다.

분양가 상승에 따른 프리미엄도 상당한 추세다. 초기 3억4000만원으로 공급을 시작했던 우남건설 퍼스트빌의 경우 현재 4억4000만원을 호가하며 1억원의 웃돈이 붙었다. 전세물량도 찾아보기 어렵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는 기존의 입주속도 흐름을 따르지 않는 특이 지역"이라고 말했다. "낮은 금리 탓인지 입주지정기간 잔금 처리를 다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납률도 높아 동탄2 시범단지 시공사들은 잔금 납부에 대한 걱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쏟아지는 공급 물량에도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는 까닭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KTX와 GTX 개통을 앞두고 있어 현재 가격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답했다. 내년 6월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바로 옆에는 KTX 동탄역이 개통된다. 오는 2020년에는 KTX 선로와 같이 사용하는 삼성~동탄 37.9km 구간에 시속 180km의 GTX가 도입될 예정이다.

동탄역 옆 부지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상승세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현재 동탄2신도시는 기반시설이 부족하지만 교통편은 우수하게 갖추고 있다. 단지 옆에는 강남, 수원, 병점행 버스 노선이 약 13개가량 있다.

시범단지 내에는 초중고교가 모두 개교 중이다. 동탄2신도시 중심에는 리베라CC가 위치해, 롯데, 호반, 한화 등이 제공하는 아파트에서는 페어웨이를 조망할 수 있다.

/윤정원기자 garden@metroseoul.co.kr

4월 주택거래량, 2006년 래 '최대'

전세 대신 주택 구매 늘어

지난달 주택매매거래량이 2006년 이후 동월 대비 최대치를 기록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주택거래량은 12만488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3% 늘었다. 전 달인 3월과 비교하면 7.7% 증가했다.

4월 주택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6만3712건, 지방이 5만6776건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월 대비 각 47.0%, 13.8% 증가한 수치다.

서울은 2만3252건을 기록해 68.0% 늘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3452건으로 80.8% 올랐다.

전국 주택 유형별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가 8만3483건 거래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7% 증가했다. 연립·다세대는 2만1939건으로 34.1%, 단독·다가구는 1만5066건으로 25.9%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작년 동월 대비 ▲아파트(4만4055건) 45.9% ▲연립·다세대(1만5040건) 49.8% ▲단독·다가구(4617건) 49.3% 거래량이 증가했다.

지방은 ▲아파트(3만9428건) 13.7% ▲연립·다세대(6899건) 9.2% ▲단독·다가구(1만449건) 17.8%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세 대신 주택을 사는 이들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꼬마화가 찾아라" 이광우 우리은행장이 10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0회 우리미술대회'에서 베트남 어린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즐거워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국내은행, 해외서 '빛' 찾는다"

1분기 당기순이익 1340억원... 작년비 210억 증가

국내은행들의 해외 영업에 정진 호가 켜졌다.

글로벌 수익 비중이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외환·국민·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 1분기 동안 해외에서 1340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거둬들였다.

이는 전분기보다 236억원, 작년 동기보다 21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저금리·저성장 추세에 허덕이던 국내은행들이 해외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한 곳은

신한은행으로 올 1분기 378억원(약 3500만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한은행은 역대 최대 수익을 올렸던 지난해 2분기(371억원) 기록을 경신했다.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글로벌 수익 비중도 9.8%로 지난해 평균(8.7%)을 상회했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해외 영업망을 확보한 우리은행은 올해 1분기 해외 185개 지점에서 382억원의 순이익을 벌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4분기 22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올 1분기 135곳의 하나·외환은행 해외지점에서 513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전분기(118억원)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다만 KB국민은행은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국민은행은 18곳 해외지점에서 전분기(114억원)보다 47억원 감소한 67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한편 해외점포의 활성화를 위해 선 현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에 현지인을 해외점포장으로 임명하는 등 현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고 재무책임자(CFO)와 감사를 파견하고 한국에 유학 중인 현지 학생들을 활용해 육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백라기자 alive0203@

브랜드와 디자인을 고를 수 있다는 건
큰 남자의 행복!

KBS 생생정보통 소개
국내 최대 남성 빅사이즈 매장
(2호선 영등포구청역)

대표전화
1588-9145

빅앤조이 큰웃백화점
www.bigjoy.com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2가 45-5 시타2리빌딩 2층

로또복권 제649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3 21 22 33 41 42	20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2,948,042,100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54,593,373
3등	5개 숫자 일치	1,454,531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100206	



보험업계, 영업채널 개선안 ‘동상이몽’

당국, 보험상품중개업 제도 신설...GA에 책임·권리 강화

불안전판매 등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독립보험대리점(GA)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보험상품중개업자제도가 발의됐다. 하지만 GA와 보험중개업자, 기존 보험사 간 이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8일 위 내용을 포함한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인 황진태 대구대 교수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로부터 독립 지위를 보장받는 ‘보험상품중개업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보험상품중개업자제도란 GA 등 보험판매채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업자에게 보험상품중개업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들 보험상품중개업자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로부터 독립 지위

중개업자
“GA, 전문성 결여
기업시장 진출 안돼”

GA
“도입 취지는 이해
수수료 인하는 반대”

를 보장받는 대신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들 영업채널에게 법적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해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를 두고 GA, 중개사, 보험사, 소비자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GA는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수료 인하 문제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재 판매채널의 모집 수수료를 명시화하도록 하고 6개월 이내에 승합계약(한 보험사에 스카우트된 보험설계사가 종전 보험사의 보유계약을 함께 옮겨 가져가는 부당 모집행위) 금지 의무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중개사는 대형 GA의 기업보험 시장 진출을 우려하고 있다.

한만영 보험중개협회 회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성이 없는 대형 GA가 기업보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꼴이 된다”며 “금융시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선진금융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보험사도 다른 속내를 보였다.

GA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립지위 강화가 꺼려로운 것



보험연구원은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인 황진태 교수와 관계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메트로신문DB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 GA에 소속된 설계사가 전체의 절반일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보험상품에 대한 책임은 거의 지지 않았다”며 “GA에 대한 적합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판매채널업자인 GA가 보험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앞서 지난 2008년에도 각 이해당사자 간 이견차이로 이 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다”며 “이 문제의 가장 큰 방향은 소비자보호인 만큼 각 단체들이 이를 위해 한발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5월은 사회공헌의 달”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가운데)과 김연애(왼쪽 2번째)가 참가 어린이들과 놀이시설 체험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KB금융 제공

‘e편한세상 신촌’ 등 22개 단지 공급



분양캘린더

지난달 전국 분양 실적이 2008년 조사 이후 매년 동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분양시장의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 5월 둘째 주에도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10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5월 2주 전국적으로 청약접수 22곳, 당첨자 발표 17곳, 당첨자 계약 16곳, 견본주택 개관 7곳의 일정이 계획돼 있다.

대림산업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1-3구역을 재개발한 ‘e편한세상 신촌’의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전용면적(이하 동일) 59~114㎡, 총 1910가구 중 625가구가 일반분양 몫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 아현역, 신촌로, 마포대로, 내부순환도로 등의 교통망을 갖췄다.

같은 날 한신공영과 제일건설이 경기도 부천 옥길지구 A3-C2블록에 짓는 ‘제이드카운티’ 1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74~97㎡, 전체 1190가구다. 국철1호선 역곡역과 서울지하철

7호선 은수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14일 경기도 수원 권선동에서 ‘수원 아이파크시티 5차’를 1순위 공급한다. 31~74㎡, 전체 550가구 규모다. 수원버스터미널, 아파트, 롯데마트, NC백화점,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시립도서관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반도건설은 15일 대구 동구 신천동 일원에서 ‘동대구 반도유보라’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39~84㎡, 총 764가구 중 56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대구지하철 4호선 신천역이 도보 거리다. 동대구역,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아파트, 칠성종합시장, 시민체육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날 경남 거제시 양정동과 문동동에 공급하는 ‘거제2차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73~103㎡, 전체 1279가구다. 인근에 거제중앙로, 국도우회로, 양정터널과 인접했다.

/박선욱기자 pso9820@

“금감원, 채권단 동의 없이 ‘기업구조조정’ 개입 못해”

앞으로 채권단의 동의가 없으면 금융당국이 기업 구조조정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의 기업 구조조정 개입 과정과 결과는 모두 기록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여당 의원 20여명과 11일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채권단의 자율권과 투명성 보장 등 관치 금융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의 개입 범위

와 선결 조건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장이 갖고 있던 채권행사 유예요청 권한은 주채권은행으로 이관된다. 금감원의 개입 범위는 기업개선계획과 채무 조정, 신용공여 계획 수립 등으로 한정했다.

금감원의 중재안은 채권액 비중 75%, 채권자수 기준 40% 이상이 찬성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했다. 채권단 협의회 구성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금감원이 중재안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업구조조정 개입을 공식

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기촉법 적용 대상 또한 모든 기업과 모든 채권자로 확대된다. 한시법은 상시법으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기촉법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감원의 중재 과정과 결과는 모두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이밖에 3년마다 워크아웃 성과 평가와 결과를 공개해 워크아웃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다만 부실 징후 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의 경우,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백이런기자 alive0203@

드.디.어 찾았다! I23RF

내가 찾던 디자인 소스

국내외 수만 명의 프로 작가가 함께하는 글로벌 스톡콘텐츠 서비스 고객센터 1544-4225 I23RF



저금리 장기화... CMA 인기 부활 날갯짓

잔고 50조 육박... 사상 최대 증권사, 카드연계 상품 봇물

한풀 꺾였던 증권사의 종합자산 관리계좌(CMA) 인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시중금리 덕분에 되살아났다.

사상 최저로 기준금리가 추락하면서 CMA로 뭉치돈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증시가 상승 랠리를 펼친 지난달에는 2조원이 넘는 대기성 자금이 CMA로 몰렸다.

전문가들은 "하루만 맡겨도 2%에 가까운 금리를 제공하는데다 증권사가 출시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CMA 잔고는 49조4886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지난해말 46조3349억원이던 CMA 잔고는 올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50조원을 넘는 규모로 불어났다. 특히 4월 한 달간 2조96억원이나 늘어나 올해 들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CMA 수도 지난해말 1105만개에서 지난달 말 1125만개로 20만개 증가했다.

이처럼 시중 자금이 CMA로 몰리는 것은 올해 3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영향이 크다. 기준금리가 연 2.00%에서 연 1.75%로 내려가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가 CMA의 금리를 밑돌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CMA는 기본적으로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지만, 보통 국공채나 우량 회사채, 콜 금리에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우려가 거의 없다.

CMA는 크게 환매조건부채권(CMA-RP)형과 미니마켓랩(CMA-MMW)형으로 나뉜다. CMA-RP형은 주로 국공채·은행채·AAA급 회사채에, CMA-MMW형은 한국증권금융(신용등급 AAA)의 예수금이나 콜에 투자한다.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지만 주로 우량자산에 투자해 안전하다. 증권사가 투자기간 약정금리를 제공하고, 단 하루만 돈을 넣어도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돈을 맡기거나 월급 통장으로 활용하면 좋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증권사들도 관련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연 최고 4.85% CMA금리 혜택을 주는 '신한금융

투자 CMA R+ 체크카드'를 최근 선보였다.

'CMA R+ 체크카드'는 지난해 6월 첫 선을 보인 이후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는 CMA R+ 신용카드의 혜택을 키우고,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얹었다. 특히 100만원 이상 사용하면 제공금리가 4.85%로 훌쩍 뛰었다. CMA 금리우대 서비스를 적용하면 30만원 이상만 사용해도 3.15% CMA금리가 제공된다. 또 패밀리레스토랑과 커피 전문점 최대 30% 할인, 백화점과 할인점, 온라인 쇼핑몰 최대 5% 캐시백 등 신용카드 부럽지 않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아(30%)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을 챙

기는 데 유리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현대증권은 주식형펀드, 추가연계증권(ELS), 연금저축 상품 등에 추가 수익률을 제공하는 체크카드 '에이블 아이맥스 카드'를 내놨다.

이 카드는 금융상품 가입시 매달 카드사용 실적에 따라 ▲주식형펀드 연 14.4% ▲ELS·파생결합증권(DLS), 연금저축, 퇴직연금 연 12% ▲추가연계파생결합사채 연 6% 등의 추가 수익률을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밖에 대신증권도 신한카드와의 제휴를 통해 발란스(Balance) CMA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내놓은 바 있으며 삼성증권도 삼성카드와 연계한 체크카드 두 장을 선보이기도 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신한카드, 장기렌터카 사업 본격 시동 신한카드 권오홍 부사장(가운데)이 서울 송파로 신한카드 본사에서 장기렌터카 1호 고객인 (주)포리머월드 김승규 대표(왼쪽 두번째)에게 기념 선물을 증정한 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카드 제공

KT '데이터 요금제' 통신株 견인하나

경쟁 우려 추가하락 일시적 증장기 'ARPU' 긍정 전망

KT가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이동통신시장에 요금제 개편 바람이 일고 있다. 이통3사는 LTE시장 포화와 단말기유동구조개선법(단통법) 등 규제 리스크에 한동안 몸살을 앓아 왔다. KT에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데이터 요금제 출시를 예고하면서 고객 유치 경쟁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KT는 전날보다 1.13% 떨어진 3만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텔레콤은 전일 대비 2.29% 내린 25만6500원, LG유플러스는 0.51% 하락한 9800원을 기록했다. 이통사의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운 경쟁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인 우려가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탓이다.

이날 KT는 국내 최초로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출시했다. 최저 요금인 299요금제에서 499요금제까지는 무선 간 통화가 무한 제공된다. 데이터는 요금제별로 300MB부터 6GB까지 부여된다.

KT에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잇따라 데이터 요금제 출시를 예고하고 나섰다.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운 이통3사의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

플러스도 잇따라 데이터 요금제 출시를 예고하면서 이들 이통3사의 고객 유치 경쟁 패러다임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KT가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이통3사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이통사 간 요금 경쟁이 가입자당월매출(ARPU)을 하락시킬 것인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음성·문자보다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되는 추세여서 매출은 곧 회복될 것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LTE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지난 2012년 1월 1.5GB에서 2015년 3월 3.4GB로 급증했다"며 "고사양 게임, 음원 스트리밍, 고화질 동영상 등으로 데이터 이용이 증가하는 패턴을 고려하면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중장기적으로 ARPU에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도 "이통사가 LTE 도입 이후 가입자 증가에 따른 양적인 성장을 해왔다면 2016년부터는 데이터 사용량 증대를 통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할 시기"라며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개편은 성장을 위한 선행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배기자 bobae@



KT가 '데이터 선택 요금제'를 내놓은데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를 예고하고 나섰다. 저렴한 요금제를 앞세운 이통3사의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

허점 드러낸 공시지분제도, 이대로 괜찮나



기자 수첩

김보배 <경제부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한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정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24만5000주다. 이는 지난해 6월 말 29만3500주에서 4만8500주 감소한 규모다. 정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0.2%에서 0.16%로 줄었다.

정 부회장이 언제 삼성전자 주식을 매도했는지 정확한 시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에 매각한 것으로 추정, 당시 삼성전자의 평균 주가인 124만2000원을 적용하면 정 부회장의 주식매각대금은 600억원에 넘는다.

이 과정에서 정 부회장은 기업공시를 통해 지분 매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시의무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공시는 기업의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다.

특히 기업의 상장주식 등의 변동 내용은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이다. 정부에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지분공시제도를 통해 변동 정보를 신속하게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부회장의 지분 변동 공시의무는 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갔다.

현행 지분공시제도의 '대량보유(변동)보고'(5%룰)에 따르면 본인 과 특별관계자의 소유분을 합해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한 자는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정 부회장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전 지분율은 0.2%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주식 보유 현황을 의무

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특수관계인'도 아니다.

정 부회장은 이근희 삼성전자 회장의 조카다. 때문에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으로 한정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벗어난다.

문제는 삼성전자의 경우 소량의 주식 거래도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이다.

실제 10일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97조865억원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15%에 달한다. 한 주당 가격은 133만8000원이다.

현재 국내 25여개 기업이 시가총액 10조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 대기업에 지분공시제도의 일명 '5%룰'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논의하면서 규제완화 정책을 열을 올리고 있다.

건전한 자본시장을 위해선 기업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다.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되살펴봐야 할 것이다.

2015년 2차 벤처기업 공동채용

대한민국 우수벤처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열정적인 인재를 모집합니다

◆ 벤처기업 공동채용 지원사업이란?

매출액, 성장성, 연봉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수벤처기업의 채용정보를 청년구직자들에게 제공하고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공동채용 참여기업 수준

신입사원 기준 연봉 2,200만원 이상의 정규직을 채용하고자하는 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벤처기업

지원방법

벤처전문취업포털 **브이잡**(www.v-job.or.kr)
공동채용관에서 기업별 세부 모집요강 파악 후 지원

지원자격

대학졸업자 및 특성화고 졸업자(예정자)를 포함한 미취업자

모집일정

2015.04.29(수)~2015.05.15(금)

채용절차



문의처

벤처기업협회 인재지원팀 02)6331-7051~7054
E-mail : job@v-job.or.kr



중소기업청과(사)벤처기업협회는 우수한 벤처기업의 인재를 공동으로 모집합니다.

- 2차 벤처기업 공동채용 주요 참여기업 -

▶ 선도벤처기업관 ◀

이원정공 (주)이원정공 주생산품: 자동차부품제조 · 매출액: 117,200백만원 업종/분야: 제조 · 직원: 220명 · 지역: 부산 모집내용: 전산실 신입사원 채용 0명	SIB (주)선인 주생산품: 식물성크림, 프리믹스 · 매출액: 66,000백만원 업종/분야: 식품/음료 · 직원: 130명 · 지역: 충남 모집내용: 생산품질관리/물류센터현장직 0명	suprema (주)슈프리마 주생산품: 생체인식 보안제품 · 매출액: 69,000백만원 업종/분야: 제조/통신장비 · 직원: 200명 · 지역: 경기 모집내용: SW개발자 0명	RS Automation 알에스오โต메이션(주) 주생산품: PLC, 인버터 · 매출액: 50,000백만원 업종/분야: 전기전자 · 직원: 150명 · 지역: 경기 모집내용: 디바이스 컨트롤러 개발/영업관리 0명	KAONI (주)가온아이 주생산품: 소프트웨어개발 및 자문 · 매출액: 32,206백만원 업종/분야: 서비스업 · 직원: 159명 · 지역: 서울 모집내용: 응용프로그래머, 사무관리, 솔루션유지보수 0명
Future Systems (주)퓨처시스템 주생산품: 방화벽제품군 · 매출액: 29,000백만원 업종/분야: IT(보안) · 직원: 170명 · 지역: 경기 모집내용: Java, 리눅스, C++ 연구개발, 전문연구요원 0명	sewoo (주)세우테크 주생산품: POS Printer · 매출액: 26,610백만원 업종/분야: 컴퓨터 주변기기 · 직원: 135명 · 지역: 경기 모집내용: 미니프린터 해외영업 0명	META NETWORKS (주)메타네트웍스 주생산품: 한기/디지털도어락/세탁기 · 매출액: 24,800백만원 업종/분야: 전기전자 · 직원: 85명 · 지역: 서울 모집내용: 제조/생산관리/구매/기구설계 0명	msway (주)엠에스웨이(주) 주생산품: 임베디드/솔루션 · 매출액: 24,000백만원 업종/분야: 제조 · 직원: 30명 · 지역: 서울 모집내용: 기술영업/엔지니어 0명	am (주)아미코스메틱 주생산품: 화장품 · 매출액: 23,388백만원 업종/분야: 화장품 제조업 · 직원: 99명 · 지역: 서울 모집내용: 마케팅/영업 0명
GIT (주)그린아이테크코리아 주생산품: CCTV, CCTV, 출입통제시스템, 정보통신망사업 · 매출액: 18,000백만원 업종/분야: 건설/토목 · 직원: 31명 · 지역: 경기 모집내용: 영업 및 고객지원(정보통신 관련) 0명	WISENUT (주)와이즈넛 주생산품: 검색솔루션 · 매출액: 15,407백만원 업종/분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 직원: 138명 · 지역: 경기 모집내용: 검색솔루션구축 및 설계, 온라인광고개발, 빅데이터분석서비스개발 0명	WISE I TECH (주)위세아이텍 주생산품: 패키지소프트웨어 · 매출액: 14,000백만원 업종/분야: 소프트웨어개발 · 직원: 146명 · 지역: 경기 모집내용: 소프트웨어개발(JAVA, SQL) 0명	APEC (주)아팩 주생산품: 이코일릭에디션 · 매출액: 13,100백만원 업종/분야: 출판/인쇄(화학) · 직원: 30명 · 지역: 경기 모집내용: 생산/연구/품질관리 0명	IDELECS (주)지디일렉스 주생산품: 분전반 · 매출액: 12,700백만원 업종/분야: 제조 · 직원: 40명 · 지역: 경기 모집내용: 전기설계(수배전반, 분전반, MCC) 0명

▶ 우수성장기업관 ◀

mds technology MDS테크놀로지(주) 주생산품: 임베디드SW · 매출액: 105,000백만원 업종/분야: SW개발 및 공급 · 직원: 250명 · 지역: 경기 모집내용: 기술영업, 기술지원, 연구개발, 교육연구, 기획마케팅 0명	FIMSTECH (주)한산에이엠에스텍 주생산품: 전력량계, 원격검침시스템 · 매출액: 20,561백만원 업종/분야: 제조/도소매 · 직원: 19명 · 지역: 경기 모집내용: HW설계, 신뢰성시험, 설계도면 등 0명	BSRND (주)보성알앤디 주생산품: 송강스크린도어 생산 및 기계설계/도면제작 · 매출액: 15,322백만원 업종/분야: 기계/기계설비 · 직원: 25명 · 지역: 전북 모집내용: 캐드프로그래머를 활용한 기계설계 0명	You're the Artist (주)스피던트 주생산품: 의료가기 · 매출액: 9,876백만원 업종/분야: 제조업 · 직원: 73명 · 지역: 인천/서울 모집내용: 인턴(연구/생산관리), 서울(영업) 0명	엔젤 (주)엔젤 주생산품: 전기녹주기, 기어 · 매출액: 8,731백만원 업종/분야: 제조 · 직원: 85명 · 지역: 부산 모집내용: 기계, 기구, 금형 설계/특허출원 0명
STOK (주)에스엠케이 주생산품: 메모리, 배터리팩 · 매출액: 8,100백만원 업종/분야: 제조/도소매 · 직원: 10명 · 지역: 경기 모집내용: 배터리연구개발, 설계/반도체 기술영업 0명	LSware (주)엘에스웨어(주) 주생산품: 컴퓨터 보안솔루션 · 매출액: 8,672백만원 업종/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직원: 10명 · 지역: 서울 모집내용: 공공분야 프로젝트PM 0명	Media4th & Company (주)미디어포스앤컴퍼니 주생산품: 웹사이트구축 · 매출액: 3,190백만원 업종/분야: 웹/이전시 · 직원: 60명 · 지역: 서울 모집내용: 웹퍼블리셔 모집 0명	K smartec (주)케이스마텍 주생산품: SW · 매출액: 2,350백만원 업종/분야: SW 개발 · 직원: 37명 · 지역: 서울 모집내용: 모바일 서비스 기획 0명	ROVERMOOT 로버무트(주) 주생산품: 사드통합 인터넷보안시스템, SW개발공급 · 매출액: 2,025백만원 업종/분야: IT정보통신서비스 · 직원: 15명 · 지역: 서울 모집내용: 엔지니어(서버/네트워크), 관리팀(경영지원) 0명
JINN (주)진 주생산품: 시험기제작 · 매출액: 1,600백만원 업종/분야: 제조 · 직원: 6명 · 지역: 경북 모집내용: 제품개발 제어(전기/전자, SW개발), 기술영업 0명	BESCON (주)베스콘 주생산품: 산업용 자동제어시스템 · 매출액: 1,396백만원 업종/분야: 전기, 전자, 제어 · 직원: 14명 · 지역: 경기 모집내용: 자동화제어반 현장조립 0명	PLANTASSET (주)플랜트에셋(주) 주생산품: 솔루션 · 매출액: 1,304백만원 업종/분야: 서비스 · 직원: 19명 · 지역: 서울 모집내용: 정부 R&D 과제 참여 및 솔루션 개발 업무 등 0명	HIGH-D (주)하이디시큐리티 주생산품: 영상보안장비 · 매출액: 860백만원 업종/분야: 컴퓨터/하드웨어/장비 · 직원: 6명 · 지역: 서울 모집내용: 웹디자인/총무/정보처리 0명	세종티앤에스 (주)세종티앤에스 주생산품: 산업기계부품 · 매출액: 773백만원 업종/분야: 제조업 · 직원: 11명 · 지역: 인천 모집내용: MCT조직원 0명

▶ 연봉우수기업관 ◀

DKI (주)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주생산품: 소프트웨어개발 · 매출액: 12,000백만원 업종/분야: 서비스 · 직원: 105명 · 지역: 서울 모집내용: 소프트웨어개발(JAVA, JSP, JAVA SCRIPT) 0명	KISCA (주)한국정보기술단 주생산품: 정보시스템관리 · 매출액: 8,647백만원 업종/분야: 서비스 · 직원: 126명 · 지역: 서울 모집내용: IT전문인력(정보보안/제안팀원) 채용 0명	iDG (주)아이디지 주생산품: 교육훈련장비 · 매출액: 8,400백만원 업종/분야: 제조/도소매 · 직원: 35명 · 지역: 경기 모집내용: 생산/제조/설비/조립 0명	SAMHO TECH (주)삼호무역 주생산품: 수족관용품 · 매출액: 8,117백만원 업종/분야: 제조/도소매 · 직원: 23명 · 지역: 경기 모집내용: 구매담당(번역/공급사관리/코레스 등) 0명	열린기술 (주)열린기술 주생산품: 소프트웨어개발 · 매출액: 7,400백만원 업종/분야: 제조 외 · 직원: 70명 · 지역: 서울 모집내용: 소프트웨어개발(sap, net/java) 0명
KOBA (주)케이오비에이 주생산품: 원추기 · 매출액: 7,000백만원 업종/분야: 기계/기계설비 · 직원: 60명 · 지역: 서울 모집내용: CNC/복합기 운용 0명	THE WISE (주)더와이즈 주생산품: Marketing BTL 부문 전문애이전시 · 매출액: 7,000백만원 업종/분야: 광고/홍보/전시 · 직원: 40명 · 지역: 서울 모집내용: 기획 및 연출 0명	BNF (주)비엔에프테크놀로지(주) 주생산품: 플랜트 감시/제어/예측/진단 솔루션 · 매출액: 6,631백만원 업종/분야: 소프트웨어개발 · 직원: 93명 · 지역: 대전 모집내용: 응용/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0명	테크밸리(주) 주생산품: 산업용 엑스레이 · 매출액: 5,633백만원 업종/분야: 제조 · 직원: 38명 · 지역: 경기 모집내용: 장비제조 및 A/S/장비영업 및 고객 기술지원 0명	MONITORAPP (주)모니터랩 주생산품: 웹방화벽, DB접근제어, VoIP 방화벽 · 매출액: 5,300백만원 업종/분야: 소프트웨어개발 · 직원: 64명 · 지역: 서울 모집내용: DB보안솔루션 개발 0명
PIONEER (주)픽소니어 주생산품: 과학기술 소프트웨어 · 매출액: 4,981백만원 업종/분야: 서비스/제조 · 직원: 48명 · 지역: 대전 모집내용: SW개발 응용프로그래머(C/C++, C#) 0명	imageNEXT (주)이미지넥스트 주생산품: AVM 제조 · 매출액: 4,930백만원 업종/분야: 전기전자제어 · 직원: 80명 · 지역: 경기 모집내용: 카메라 개발, 기구설계, 해외영업 0명	WEIN (주)웨인테크놀로지 주생산품: 금융관련 솔루션외 · 매출액: 4,500백만원 업종/분야: IT · 직원: 50명 · 지역: 서울 모집내용: 웹프로그래머 0명	WISEfn (주)와이즈에프엔 주생산품: 금융정보서비스 · 매출액: 4,200백만원 업종/분야: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 직원: 61명 · 지역: 서울 모집내용: 마케팅/R&D/안드로이드, iOS개발자/웹디자인/sw개발자 0명	(주)프리미어오브제 주생산품: 전자상거래 · 매출액: 14년설립 업종/분야: 도소매 · 직원: 12명 · 지역: 서울 모집내용: 해외바이 MD 채용공고 0명



갤럭시 S6·엡지, 日서 ‘돌풍’ 없었다

출시 2주 만에 판매량 순위↓
시장 점유율 확대 ‘경고음’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6·S6 엡지의 일본 시장 연착륙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제품에 회사 이름까지 지웠지만 출시 2주 만에 판매량 순위가 뒷걸음질치고 있다.

10일 일본 정보기술(IT) 리서치 사이트 BCN랭킹에 따르면 주간 판매 순위(4월27일~5월3일 기준)에서 갤럭시 S6 엡지는 26위, 갤럭시 S6는 30위를 기록했다. 전주 집계



삼성전자 갤럭시 S6 엡지 일본 도쿄모 출시 모델. /삼성전자 제공

서 갤럭시 S6 엡지는 10위, 갤럭시 S6는 17위를 기록했다.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지난해 9월 출시된 아이폰6의 강세가 여전한 상황이다. 판매량 1위를 비롯해 상위 10위 중 아이폰6가 6자리를 차지했다. 이밖에 소니 엑스페리아 Z3와 샤프 아쿠오스 제타 등이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일본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5.6%다. 삼성전자는 2012년까지 2~3위를 기록했지만 애플 아이폰과 소니·샤프 등에 밀리며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일본은 연간 3000만여대가 팔리는 세계 4위의 스마트폰

시장이다.

갤럭시 S6·S6 엡지는 지난달 23일 일본 시장에 출시됐다. 삼성전자는 제품에 이례적으로 ‘SAMSUNG’ 로고까지 지웠다. 이에 대해 업계 일부에서는 일본내 반한 감정을 고려한 현지화 전략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갤럭시 S6·S6 엡지에 대한 일본 시장의 초기 반응은 기대를 밑돌고 있다. 아이폰의 입지가 굳건한 데다 자국제품 선호가 강한 일본 소비자들이 쉽게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제품 출시 이후 불거진 ‘밴드 게

이트’와 ‘램 최적화 이슈’까지 더해져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반격의 카드로 꺼낸 갤럭시 S6·S6 엡지까지 고전할 경우 일본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는 더 위축될 전망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은 아이폰 강세가 두드러지고 자국 업체의 충성도가 높은 시장”이라며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이 상향 평준화 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주력제품마저 고전하는 상황에서 시장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jc@metroseoul.co.kr



지난 8일 어버이날 삼성디스플레이에 초청된 임직원 가족들이 첨단 플래시 디스플레이를 신기한 듯 만져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제공

“아들 직장 구경 가볼까”

삼성디스플레이
가족초청 체험 이벤트

삼성디스플레이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다양한 가족사랑 이벤트를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8일 어버이날에 디스플레이 생산 핵심부서인 제조센터 임직원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100여명을 회사로 초청했다.

기술 보안을 위해 평소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이날 만큼은 가족들을 위해 캠퍼스를 공개했다. 자녀의 회사를 처음 방문한 부모님들은 자녀가 근무하는 의자에 직접 앉아보고, 디스플레이홍보관 관람, 소통 레크리에이션 참여 등 특별 투어 프로그램에 즐거워했다.

이용관씨(이연택 사원 부)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근무환경이 좋고, 복지시설들도 너무 마음에 든다”며 “특히 만지는 대로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 제품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계속 근무했다면 좋겠다”며 방문 소감을 남겼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5일 어린이날에도 각 캠퍼스마다 임직원 가족초청행사를 개최, 8000여명의 가족을 초청했다. ‘아빠와 함께 드론 띄우기’ ‘과학체험존’ ‘자연학습동물원’ 등 수십 가지의 체험 행사를 마련해 임직원들이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회사를 제대로 알리고 임직원 가족들도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친근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가족사랑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며 “뜻 깊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한진기자

LG전자 ‘무빙파크 캠페인’
포터블 스피커 40대 후원

LG전자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음질과 편의성을 강화한 포터블 스피커를 소비자들에게 소개했다.

LG전자는 10일 서울시가 주관하는 도심 속 이동형 공원 조성 행사인 ‘무빙파크 캠페인’에 참가했다.

이 캠페인은 만리재에서 명동까지 이어지는 서울역 고가도로 중

600m 구간을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하는 행사다.

LG전자는 공원 잔디밭에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LG 포터블 스피커(모델명: NP7550) 40대를 준비했다.

시민들은 공원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등 정보기술(IT)기와 LG 포터블 스피커를 블루투스로 연동해 원하는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조한진기자

또 부품 배터리... 갤럭시 S6 안전성 도마

S3와 노트1·2서도 논란

삼성전자 갤럭시S6의 배터리 안전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갤럭시S6 일부 제품 배터리에서 ‘스웰링(부풀어 오름)’ 현상이 발견됐다. 이는 과거 갤럭시 시리즈에서 비슷한 현상이 발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 11월, 2014년 3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스웰링에 따른 무상 교환 서비스(갤럭시S3, 갤럭시노트1·2)를 실시한 바 있다.

10일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 ‘뽀뽀’에는 갤럭시S6의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 사진과 글이 게시돼 주목받고 있다.

‘갤럭시S6의 배터리가 부풀어 올랐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날아라XX’은 “대리점에서 갤럭시S6 기기를 받고 개봉도 안 하다가 결국 쓰던 전화가 끊겨서 박스를 열었더니 단말기 배터리



삼성전자 갤럭시S6 모델 중 배터리 부풀음 현상이 발생한 제품.

가 부풀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을 보면 갤럭시S6가 폭발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부풀어 올랐음을 눈으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갤럭시S6 앞뒤로 틈이 벌어지는 유격현상까지 크게 나타났”며 “전원버튼을 눌러도 켜지지 않고, 폭발하지 않은게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삼성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그는 “업무가 바빠서 그냥 넘어갔지만 기분은 그리 좋지 않다”고 글을 남겼다.

그러나 갤럭시S6의 배터리 스웰링 문제는 해외에서도 논란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IT전문 블로거인 RB 맨은 “스마트폰용으로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불량으로 추정된다”며 “팽창의 정도를 봤을 때 폭발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전했다.

/양성운기자 ysw@

삼성전자, 美 UHD 지상파 방송 표준규격 채택

최초 규격문서 승인

삼성전자가 주도한 ‘북미 지상파 UHD(3840 x 2160) 방송 물리계층 부트스트랩(Bootstrap) 규격’이 최초의 ATSC 3.0 잠정 표준(Candidate Standard)으로 채택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미국 주요 방송사업자 싱클레어의 자회사 ONE Media사와 공동으로 부트스트랩 규격을 제안해 전국망규모 1위 사업자인 pearl 그룹을 포함한 미국 방송사업자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다. 이번에 ATSC 회원사 투표를 거쳐 최초의 규격문서로 승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채택시킨 기

술은 부트스트랩 신호가 기존의 데이터 신호와 분리해 운영 가능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해 방송사업자들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열악한 방송 수신 환경에서도 부트스트랩만 수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이동 서비스에서 일부 구간에서의 수신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기존 신호는 끊기지 않아 서비스의 연속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ATSC 3.0 규격은 이번에 승인된 부트스트랩 규격을 필두로, 올해 연말까지 물리계층 규격, 전송계층 규격, 코덱 등 응용계층 규격이 추

가로 잠정 표준 승인 될 예정이다.

이후 각각의 잠정 표준을 통합해 2016년 초에 최종 표준규격이 제정된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방송 표준을 개발하면서 새로운 방송 표준의 미래에 대해서 방송사들과 꾸준히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 개념의 부트스트랩 표준화를 공동 추진하여 기술 진화를 수용할 수 있는 차세대 디지털 방송 표준의 초석을 다지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미 채택된 기술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규격을 상정, 계속해서 기술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양성운기자



KT 데이터 요금제, 공짜 내세운 '황의 꼼수'

기본 요금제와 고작 1110원 차 기본 제공량 초과면 속도 제한

“월 2만원 대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음성 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4304억원의 가계 통신비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남규택 KT 마케팅부부장)

KT는 고객의 데이터 이용 패턴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최근 내놨다. 이로 인해 LTE 고객 1000만명에게 1인당 평균 월 3590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을 예상한다고 KT는 밝혔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기존 LTE 요금제와 실질적 비교에서도 ‘국내 최초 파격적인 요금제’라 강조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새 요금제 출시로 단기적으로는 가계 통신비가 인하되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줄 수 있다. 현재 음성·문자 서비스의 경우 1990년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비용이 이미 회수됐다고 보고 있다. 제공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사용자 부담 비용이 저렴해 진 것으로 보이기 어렵다.

기존 음성통화 망 구축은 완료됐고 앞으로 영상 전송 속도 등의 증가에 따른 데이터 중심 수요가 기하 급수적으로 커질 것을 고려했을 때 데이터가 관건이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에선 가계 통신비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웨어러블·스마트 기기의 발전과 ICT 기술 발전은 데이터의 수요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 기존 LTE 요금제와 다를 바 없는 KT의 ‘LTE 데이터 선택 요금제’

KT 데이터 요금제와 기존 LTE 요금제(KT 순완전무한)의 유사 서비스를 비교해보자. 순 완전무한 51요금제는 기본료 부가세 포함해 5만6100원에 5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고 음성과 문자는 통신사와 유무선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LTE 데이터 선택 499 요금제는 부가세 포함 5만4890원으로 차이는 1110원이다. 데이터는 6GB를 제공하고 무선 전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특징적인 부분은 유선을 제외한 무선 전화만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유선 전화는 단 30분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실상 1000원 차이를 보전할 여지를 만든 것이다.

또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우 무제한에도 ‘제한’이 있다. 음성 통화는 엄밀히 말하면 월 1만분, 문자

는 하루 500건을 제한한다. 데이터는 기본 제공량이 넘으면 속도제한을 통해 망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KT는 음성통화 이용에 대한 제한 사항을 만들었다.

총 4개의 제한 사항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추가 요금을 부과하거나 월정액 기준 유사 요금제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처했다.

1일 600분 이상 초과하는 음성 통화를 월 3회 초과 발신할 경우 월 음성통화량이 600분(부가세포함 6만원 이상 요금제 1만분)을 초과해도 제한을 받는다. 또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할 경우, 발신통화가 1000분 초과하면서 착신통화가 100분 이하인 월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제한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지 의심스럽다.

이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의 체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기본료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우 의원은 “기본요금이라고 하는 성격이 90년대 당시 초기에 투자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에 한해서는 일정하게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그게 바로 기본(투자비)요금인데, 현재 집전화(유선) 같은 경우 초기투자 비용을 거의 다 회수했기 때문에 기본료를 최저 책정해 월 1000원 정도 받듯 무선전화에서도 이제는 기본 요금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그동안 기본료는 통신사가 망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이중 징수를 했지만 그 필요성이 소진된 만큼 통신사가 입는 타격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연세대 명예 박사학위

경제·대학발전 기여 공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연세대학교에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는 박 회장이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회장은 전날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백양콘서트홀에서 열린 ‘연세 창립 130주년 기념식’에서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림에 따르면 박 회장은 1945년 3월 19일 광주에서 태어나 1967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금호타이어에 입사해 경영에 첫발을 내디뎠었다.

이후 금호실업과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2002년부터



9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왼쪽)이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백양콘서트홀에서 정갑영 연세대 총장으로부터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제공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평소 합리성에 기반한 경영과 고용증대를 통한 사회기여를 강조해 온 박 회장은 운송, 타이어, 건설,

항공 등 국가 기간산업과 교육, 문화사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국가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그룹은 전했다.

박 회장은 대외적으로 교육, 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해왔다.

2005년 4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이사장에, 올해 2월 9대 한국메세나협회 회장에 취임하며 문화예술 후원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08년 6월부터 연세대 총동문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동문들의 힘을 모아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양로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연세금호아트홀 건립을 후원함으로써 모교의 문화예술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정필기자 roman@



9일 쉼보레 부평 본사 홍보관에서 열린 2회 어린이 그림 그리기 본선 대회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쉼보레 제공

쉼보레 ‘꼬마 피카소’ 찾아라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4800여점 응모 20명 수상

쉼보레는 국내 도입 4주년을 기념해 전날 부평 본사 홍보관에서 2회 어린이 그림 그리기 본선 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4800여점의 예선 응모작이 접수됐다.

본선은 심사를 통해 예선전을 통과한 어린이 100명이 경합을 벌였다.

본선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자동차와 꿈꾸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주제 하에 자동차를 소재로 그림을 그렸다.

창의력, 주제 표현력, 색채 조화도, 작품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수상작이 선정됐다.

전문 심사단의 평가를 통해 유치부 8명, 초등부 12명 등 20명의 작품이 최종 수상 작품으

로 뽑혔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를 비롯해 2000만원 상당의 단기 연수권, 여행권, 상품권 등의 부상이 제공됐다.

이경애 한국지엠 마케팅본부 전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진 이번 대회는 총 4800여점 이상의 예선 작품이 접수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며 “쉼보레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브랜드 가치를 알리기 위한 고객 대상 마케팅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쉼보레는 ‘슈퍼 세이프티 프로젝트’를 통해 총 1000곳의 어린이 관련 시설에 폐쇄회로(CC)TV 등 보안 시스템을 기증하는 한편 스마트 초록 버튼, 안전 투명우산, 어린이 안전 헬멧 제공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정필기자

기아차 ‘서프라이즈 워크엔드’ 음악·드라이빙 등 체험 다채

기아자동차는 전날 강원도 인제 스피디움 서킷에서 2015 기아 서프라이즈 워크엔드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기아 서프라이즈 워크엔드는 기아차가 2013년부터 예술, 음악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해 고객이 기아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다.

올해는 ‘뮤직 온 더 서킷’이란 주제로 꾸며졌다. 기아차는 20대 고객 400여명에게 ▲음악 체험 ▲드라이빙 체험 ▲기아 브랜드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음악 체험은 인제 스피디움 서킷에서 DJ가 펼치는 디제잉 공연과,



기아자동차는 9일 강원도 인제시 기린면 복리에 위치한 인제 스피디움 서킷에서 ‘2015 기아 서프라이즈 워크엔드(KIA Surprise Weekend)’를 개최했다. /기아차 제공

남성 힙합 듀오 ‘다이나믹듀오’가 트랙 위에서 펼치는 콘서트로 구성했다.

드라이빙 체험은 ▲레이서가 운전하는 K3에 동승해 속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서킷택시 ▲레이서를

따라 직접 서킷을 주행하는 서킷가이드랩 등의 활동으로 진행했다.

기아 브랜드 체험은 ▲기아차 캐릭터 ‘엔지와 친구들’ 종이장난감 만들기 ▲레이싱 게임 ▲브랜드 컬렉션 전시 등으로 실시했다. /이정필기자



롯데월드몰 무료 개방 첫날 “9만9000명 몰려”

주말 이틀간 20만명 전망 평소보다 매출 50% 이상↑

롯데몰산(대표 노병용)은 롯데월드몰 무료 관람 첫 날인 9일 총 9만9000명(면세점 제외)이 관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4월 하루 평균 방문객보다 60%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오전부터 방문객이 늘어 시네마 1만명, 아쿠아리움에는 2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렸다. 아쿠아리움 앞에 있는 푸드코트도 9일 하루 매출이 4월 평소 주말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9~10일 이틀간 약 20만명의 고객이 몰릴 전망이다.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아쿠아리움과 시네마에 대한 무료 관람 온라인 접수도 마감됐다.

온라인 접수는 8일 오전 10시 롯데

월드몰 공식 홈페이지에서 아쿠아리움 무료 관람객 6000명이 선착순 마감된 데 이어 오후 4시에 1000명을 추가로 받았다. 시네마 역시 롯데시네마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총 3만 명을 모집했다.

박현철 롯데몰산 사업총괄 본부장은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총 3만 7000명에 달하는 무료 관람 접수가 모두 마감됐고, 롯데월드몰에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 드린다”며 “안전조치 등을 더욱 철저히 점검해 완벽한 모습으로 12일 정식 재개장을 준비해 고객들을 맞겠다”고 말했다.

롯데몰산 측은 이번 아쿠아리움과 시네마 재개장으로 2만~3만 여명에 달하는 고객이 추가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9일 공사를 재개해 내년 공식 개관 예정인 콘서트홀은 롯데



가 1200억원을 투자해 2036석의 대규모로 건립 중이다. 예술의 전당 이후 서울에 27년만에 건립되는 클래식 전용 공간이다. 개관에 앞서 연간 160억원 이상의 운영비용을 투자해 클래식 음악의 활성화를 위해 롯데문화재단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SK플래닛 11번가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T타워에서 인기 반려동물 용품을 선보이고 있다. SK플래닛 11번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1일을 반려동물을 위한 ‘11번가 펫데이’로 지정하고 반려동물 용품을 60% 할인 판매하는 기획전 ‘11dayz T멤버십 펫데이’를 11일 단 하루 진행한다.

/뉴스스

냉동과일, 불황 속 마트 효자품목 등극

냉동 과일이 인기다. 생과일에 비해 보관이 용이하고 최근 과일을 요거트 등과 섞어서 먹는 것이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빙수 재료로 냉동 과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당분간 인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달 냉동 과일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1% 늘어났다.

1~4월까지 매출도 지난해 보다 13.8% 늘었으며, 5월(5/1~7) 들어서도 12.8% 신장해 대형마트의 효자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냉동 과일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냉동 블루베리 매출(1~4월)은 전년 대비 4.7% 줄었지만 아사이베리·엘더베리·블랙커런트 등 기존에 취급하지 않았던 종류가 등장하며, 전반적인 신장세를 기록했다.

실제 롯데마트에서 1월부터 4월까지 ‘떠먹는 요거트’의 매출은 11.4% 증가했으며, 그 중에서도 과일혼합 떠먹는 요거트 매출은



24.4% 줄어든 반면 플레인 떠먹는 요거트 매출은 117.0% 증가했다. 롯데마트는 15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04개점에서 ‘통큰 냉동 태국망고(500g·봉)’를 4900원에, ‘페루 냉동 애플망고(1kg·봉)’를 6900원에 선보일 계획이다

신경환 롯데마트 과일팀장은 “기존 블루베리 일색이던 냉동 과일도 람부탄·리치·크랜베리·오디·석류 등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며 “급속 냉각을 통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장기간 보관하며 먹을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가짜 백수오’ 조건부 환불에 소비자 뿔났다

소비자원·소비자단체들 “흡소핑 미온적 대처” 비판

TV흡소핑 업체들이 ‘가짜 백수오’ 사태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결국 실패하고, 각 업체 별로 환불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먹고 남은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을 하겠다는 조건부 대책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10일 흡소핑업체에 따르면 지난 8일 한국소비자원과 장시간 소비자들의 공동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으나 공동 보상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백수오 제품 판매와 관련해 실제 많은 업체와 상대적으로 실제 적은 업체 간에 입장 차이가 컸다는 게 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흡소핑 업체 한 관계자는 “과거 판매 제품까지 모두 환불하게 되면 전체 규모가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어 공격적인 환불 정책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각 업체

는 개별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환불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S흡소핑과 CJ오쇼핑, NS흡소핑, 현대흡소핑, 흡앤쇼핑은 구매 시점과 상관없이 남은 제품에 대해서 반품 처리하기로 했다. 롯데흡소핑은 잔여 제품은 마찬가지로 반품 처리하되 잔여물량을 보관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 소정의 상품이나 포인트 지급 형식으로 간접 보상하기로 했다.

이날 흡소핑업체가 공개한 환불 원칙은 ‘배송 받은 지 30일 이내의 개봉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환불해 주던 종전 입장에서 한걸음 나아갔지만 여전히 조건부 환불인 셈이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흡소핑에서 구매한 뒤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 중인 부분에 한해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어서 구매 내역이 있어도 제품이

남아 있지 않은 소비자는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TV흡소핑 6개사와 환불안 마련에 나섰던 소비자원은 “업체들이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이엽우피소가 위해하지 않다는 점과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된 제품만 환불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워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전액 환불을 요구했다.

10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흡소핑 업체들의 미온적인 환불 조치에 “환불을 미루고, 먹고 남은 제품만 환불해주는 흡소핑 업체의 대응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흡소핑 업체는 전액 환불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백수오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달 22일부터 5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백수오 관련 소비자상담 4448건 중 안전 관련 건이 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정은미기자 21cindun@

유명 맛집, 백화점에서 매출 ‘효자’ 톱톡

유명 맛집들이 매출 ‘효자’ 노릇을 톱톡히 하며 백화점들이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이 지난해 5월 잠실점에 연단팥빵과 야채빵으로 유명한 ‘이성당’ 매장은 롯데백화점 입점 후 월평균 5억원 이상의 매출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롯데백화점 식품팀 관계자들은 당시 이성당 유치를 위해 군산의 이성당 본점을 3개월간 20여번 찾아가 공을 들인 끝에 2013년 4월 팝업스토어(임시매장) 형태로 영업을 시작했다가 지난해 5월 정식매장으로 열게 됐다.

지난해 8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 올해 4월 잠실점에 정식 매장

을 연 부산의 삼진어묵도 부산본점 월평균 2억5000만원, 잠실점 하루 평균 1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백화점 식품 부문 황슬기 수석바이어는 “맛집이 입점하면 집객으로 이어져 다른 상품군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수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팝업스토어와 정식 매장을 활용해 다양한 국내외 맛집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HNT 하나투어리스트

국내 최대 여행축제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2015. 6.5(금) ~ 6.7(일) 3일간 일산 KINTEX

특가상품 BEST 6



하나투어리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특가 상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www.hanatourist.com

동남아 BEST

대만 (아류/지우펀) 4일
598,800부터
 ▶ 5월~6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자불▶ 40달러/선택경비 있음)
 ● 타이페이(3)

중국 BEST

장가계 5일/6일
460,000부터
 ▶ 5월~6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자불▶ 40/50달러/선택경비 있음)
 ● 장사(1)~장가계(2/3)~장사(0/1)

일본 BEST

큐슈 4일
553,400부터
 ▶ 5월~6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자불▶ 포함/선택경비 있음)
 ● 사가(1)~후쿠오카(1)~벳부(1)~유후인

남태평양 BEST

괌 ★PIC리조트 4일/5일
 [성인 2명+아동 2명 전용]
799,000부터
 ▶ 5월~6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현지자불▶ 30달러/선택경비 있음)
 ● 괌(3/4)

미주 BEST

미서부일주 ★3대캐년관광 8일/9일
1,651,700부터
 ▶ 5월~6월 매주 금,토요일(일부제외)
 (현지자불▶ 97/110달러/선택경비 있음)
 ● 살리나사(1)~L시(1)~리틀린(1)~케넬(1)~라스베이거스(1)~프레스노(1)~샌프란시스코(1)
 ※ 상품별 일정상임

유럽 BEST

[프랑스/스위스/이태리/독일]
서유럽 4개국 8일
2,350,000부터
 ▶ 5월 24,29일
 6월 3,7,12,14,17,19,24,26,28일
 (현지자불▶ 80달러/선택경비 있음)
 ● 파리(2)~밀라노(1)~베니스(1)~로마(1)~프랑크푸르트(1) 또는 쾰른



1577-1212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 유류할증료(발경일/원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식사요금 등 필수경비 모두 포함된 개별여행상품은 미정함 ● 가이드/기사경비 : (1) 부분은 현지에서 지낼하여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 선택경비(관광/숙박/입출)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고 ● 안전경비(보험/입출)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2015.5.8, 업데이트 기준] ● 비자 :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 ● 예약 :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라 불이연 없음,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로 받음, ● 본 여행상품은 (주)하나투어리스트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최는 (주)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 ● (주)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 1993-000006호(충청남도 서산시 중로구 인사동 5길 41 하나투어 빌딩/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주)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중로구청/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 고객상담/문의 : Tel. 1577-1233(ARS 24시간 9번) ● 최소 출발인원 : 10명 기준 ● 호텔 : 2급호텔 이상 2인 1실 사용 ● 교통편 : 항공/버스/택시(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링글스 파티 스피커로 어디서나 신나는 음악을” 농심 켈로그의 세계적인 감자칩 브랜드 프링글스가 10일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파티 스피커로 젊음의 활력 충전하세요” 캠페인 행사를 가졌다. 프링글스 감자칩 먹고 파티 스피커를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을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진행하고 있다. /프링글스 제공

“어른도 어벤져스” 그래픽 상품 판매 ↑

패션업계가 영화 어벤져스 특수를 누리고 있다. 영화가 개봉 후 누적 관객 9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패션업계가 출시한 캐릭터 상품 판매량이 급증했다. 어벤져스뿐만 아니라 미키·심슨 등 다양한 캐릭터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랜드 스파오는 올해 출시한 그래픽 티셔츠의 판매량(1~4월)이 전년 동기 대비 2.5배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스파오는 매년 커지는 키덜트족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올해 360여 가지의 그래픽 디자인 티셔츠를 출시했다. 키덜트는 아이(kid)와 어른(adult)의 합성어로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아이들의 감성과 문화를 추구하는 성인을 일컫는 말이다.

지난달 23일 선보인 어벤져스 티셔츠는 입고 전부터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며 입고와 동시 인기 상품들은 조기 완판됐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야광효과를 내는 아크 원자로 티셔츠는 초기 물량 2만장이 하루 만에 완판됐다. 이후 두 차례의 긴급 추가주문을 통해 추가



물량을 투입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스타워즈·심슨 등 캐릭터 티셔츠를 출시했다.

스파오 관계자는 “어른들은 어린이와 달리 의사결정이 구매로 즉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키덜트족을 잡기 위한 상품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에는 글로벌 캐릭터 콜라보레이션을 더욱 늘리고, 제품의 비중도 올해보다 2배 더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센터폴의 ‘어벤져스 2 키즈 에디션’ 중 히어로 캐릭터 티셔츠와 운동화는 지난 4월 출시 이후 최근 한 달간 70%에 가까운 판매율을 기록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현대리바트, 친환경 자재 사용량 증가

현대리바트(사장 김화웅)는 친환경 자재 사용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4월 30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현대리바트가 사용한 E0보드 물량은 1만8650㎡, 약 38만 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2013년 4월 30일 ~ 2014년 4월 29일)보다 64% 늘어난 수치다. 사용된 목재 연장길이는 서울과 부산 왕복거리를 넘는 약 910km다.

가구생산에 사용되는 목재는 원목과 MDF·PB로 구분된다. 이중 MDF와 PB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에 따라 E2~수퍼E0등급으로 나뉘며 현재 국내에서 대량생산·사용이 가능한 목재등급은 E0등급이 가장 높다. 정부에서는 E1등급 이상의 목재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E0등급의 MDF와 PB는 정부 기준인 E1등급 보다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약 70% 적지만 E1등급 보드보다 약 10~15% 가량 가격이 비싸다.

현대리바트는 지난해 4월 국내 종합가구업체로는 최초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가정용 가구 전제품에 E0보드 사용을 밝히는 ‘유해물질 제로경영’을 선언한 바 있다.

외식업계 ‘야구 전쟁’

신메뉴 출시·프로모션 등 야구팬 공략 마케팅 열전

2015년 프로야구 시즌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외식업계도 야구 전쟁으로 후끈달아 올랐다. 야구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색 신제품을 선보이거나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야구 팬들의 입과 눈을 사로잡고 있다.

아모제푸드가 운영하는 ‘카페아모제 잠실야구장점’에서는 50cm의 초대형 사이즈의 바게트 샌드위치인 ‘홈런바게트’로 야구팬들 입맛을 공략하고 있다.

홈런바게트는 겉은 바삭 하지만 속은 부드러운 바게트 빵 사이에 각종 야채와 햄·베이컨·계살·참치 등 9가지의 메인 토핑을 푸짐하게 담은 메뉴다.

더불어 야구장의 오랜 인기 먹거리인 치킨·오징어를 달콤한 허니버터칩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오감닭과 마약옥수수, 코리안 BBQ 치킨도 판매 중이다.

bhc는 부산 사직야구장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입점 매장에서 간편하게 치맥을 즐길 수 있는 ‘알



/카페아모제 제공

콜팝’을 출시했다. 알콜팝은 한 입 크기인 순살 치킨과 시원한 맥주를 한 용기에 담은 아이디어 메뉴다. 맥주를 빨대로 마시는 이색적인 재미를 더했다.

특정 구단과 손을 잡고 프로모션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CJ푸드빌은 두산베어스 홈경기 시 생일을 맞은 관람객에게 하우스와인 포함 샐러드바 식사권을, 어린이 팬에게는 어린이 샐러드바 식사권을 제공한다.

또 퀸스데이(GUEEN'S DAY)에

입장하는 여성 관중에게는 샐러드바 식사권과 당일 입장권 추첨을 통한 스테이크 식사권을 증정한다.

파파존스는 올 시즌 동안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연승 결과에 따라 매주 목요일 온라인 주문 시 할인한다. 넥센 히어로즈 경기 결과에 따라 경기 다음주 목요일에 적용된다. 2연승 시 25%, 3연승 시 30%, 4연승 시 35%, 5~6연승 시 40%를 할인해 연승 횟수가 커질수록 혜택 또한 커진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아웃도어, 냉감소재로 여름장사 돌입

밀레 ‘콜드 엷지’·컬럼비아 ‘옵니프리 제로’ 등 자체 개발 기능성 냉감소재로 차별화 전략

아웃도어 업계가 더위에도 야외활동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냉감 소재 신제품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여름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밀레는 올해 처음으로 자체 개발 냉감소재를 적용한 티셔츠를 출시하며 냉감 소재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콜드 집업 티셔츠’(사진)에 적용된 ‘콜드 엷지’는 자체 개발한 쿨링 기능성 소재다. 땀이 나면 원단에 코팅된 기능성 폴리머가 즉각적으로 반응해 열과 습기를 신속하게 흡수하고 외부로 배출해 피부 온도를 낮춰 정상 체온을 회복시켜주는 원리다. 상대습도 40%, 섭씨 22℃의 일반 대기 환경에서 시행한 실험에서 콜드 엷지는 옷과 피부 사이의 온도를 최대 2도 가량 낮춰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컬럼비아는 쿨링 티셔츠 ‘옵니프리 제로’ 컬렉션을 출시했다. 옵니프리 제로는 옷감에 적용된 수많은 작은 블루링이 격

렬한 활동 시 발생하는 땀 또는 땀과 유사한 수분과 만나면 흡수 반응해 시원한 느낌을 주는 기술이다. 올해 출시된 제품에는 부위별로 통풍·통기성을 구현한 벤트 기능을 더해 업그레이드 했다.

라푸마가 선보인 ‘프레시아이스 티셔츠’는 체온을 즉각적으로 식혀주는 라푸마만의 냉감 기술이 적용됐다. 특히 암홀과 소매 라인에 메시 패치를 사용해 땀 배출을 원활하게 했다. 땀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세균의 증식을 막는 데오드란트 기능도 적용했다.

K2도 PCM 냉감 시스템을 적용한 ‘쿨 360 티셔츠’를 내놓았다. 열을 흡수하고 저장, 방출하는 상변환물질로 이뤄진 마이크로캡슐이 온도가 올라가면 열을



흡수해 무더운 여름에도 쾌적하게 착용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면과 같은 일반적인 천연 소재보다 확연히 빠른 땀 건조 속도와 쾌적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냉감 소재가 올 여름 패션업계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웨이민큐, 女갱년기 치료 탁월

신체·정신적 증상 80% 개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 선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갱년기에 접어든 어머니께 건강 기능식품을 선물하던 자녀들은 최근 백수오 원료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생약성분의 갱년기치료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국제약에서 내놓은 웨이민큐(Q)는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받은 일반의약품 생약복합성분의 여성 갱년기 치료제다. '서양승마(블랙코호시)'와 '세인트존스워드'의 생약복합성분으로 1940년대 독일에서 최초로 개발되어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웨이민큐는 기존 호르몬제와 거의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호



르몬제가 유발할 수 있는 유방암, 심혈관 질환 등의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따라서 일반 갱년기 여성은 물론 호르몬제 복용이 불가능하거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여성도 생약성분인 '웨이민큐'를 통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7개 대학병원을 비롯 해

외의 여러 임상연구를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 '웨이민큐'를 8주간 복용 시, 안면홍조, 발한, 우울감 등 여성 갱년기의 신체적·정신적 증상에 대해 80% 이상의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한 안면홍조 증상에는 86.4%의 개선효과가 있었다.

/최서진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관광공사, 외국인 위한 전통시장 16곳 선정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영호)는 '외국인이 가기 좋은 시장' 16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시장은 각 지자체들의 추천으로 총 35개소 시장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시장은 외국관광객의 접근성, 즐길거리, 먹거리, 주변 관광지 등 관광매력도 등을 토대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중 TV 프로그램 '런닝맨'의 촬영지로 유명한 부산국제시장은 이미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또 춘천남만시장은 춘천 닭갈비 골목에 인접해 있어 외국인 선호도



춘천남만시장

가 높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이번에 선정된 16개 시장을 대상으로 공사 해외지사를 통해 해외 전역에 홍보할 뿐만 아니라 현지 여행업체와 함께 관광상품화도 시도할 예정이다.

서울여대, 11년째 '심폐소생술 기본과정' 진행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해정)는 7일 오후 2시, 교내 학생누리관 앞에서 심폐소생술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 캠페인은 위급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심폐소생술을 재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학기마다 열고 있다. 교육을 진행한 노원구 보건소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응급 처치요령,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등을 알려주고, 심폐소생술 안내문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열었다. 교육에는 심폐소생술을 익히려는 학생,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오는 13일 오전 9시에는 교내 학생누리관 이벤트홀에서 심폐소생술 이론교육과 실습을 통해 심폐소생술 기본과정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심폐소생술 기본과정 33기'를 진행한다. 이 과정은 재학생들을 위해 2005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1년째 하고 있는 교육이다.

산들건강 "환절기 폐·기관지 걱정 마세요"

산들통배고·변석홍옥고

◆호흡기 건강에 좋은 산들통배고 폐나 기관지 기능이 정상인보다 약한 사람들은 감기에 더 자주 걸리고 비염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이 심해 지속적인 운동과 꾸준한 건강관리를 해야한다.

산들통배고(사진)는 기관지와 폐, 목 건강에 좋은 천연재료들을 4일 이상 달여서 만든 제품이다. 산들통배고는 100% 국내산 배(경주), 도라지(소백산 산도라지, 영주 약도라지), 은행(영천), 대추(경산), 생강(영주, 안동), 맥문동(청양), 겨우살이(영월), 수세미(제배), 10년 이상된 도라지 분말(영주), 홍도라지, 산삼 배양근(제주도, 의성/산삼 7뿌리)등을 전통방식인 가마솥에 4일 이상 달여서 만든다.

마른 기침을 자주하고 편식하는



하약한 어린아이나, 고령에 기력이 약하며, 가래, 기침이 심하고 폐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산삼배양근이 추가로 들어간 삼(蔘)통배고가 적합하다.

◆황제의 명약, 경옥고(瓊玉膏)

변석홍옥고는 고종황제의 어의를 지냈던 변석홍 옹이 고종황제에게 진상했던 약제다. 제조방법이 가문 대대로 이어져 지금은 변석홍 옹의 5대손인 변기원 변한의원 원장이

전통적인 방법을 그대로 살리면서 약효를 개선했다. 주재료인 인삼은 100% 국내산 홍삼을 사용하고, 열을 내리고 정력에 도움을 주는 생지황은 충북 영동에서 직접 재배한 약재만을 사용했다. 특히 생지황을 즙 형태로 뽑아 내 성분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냈다.

경옥고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음양의 기혈을 보충해주고, 피를 맑게 해 조직 내 어혈을 풀어주며 원기를 보충해 주는 효과도 탁월하다. 또한 심장에 쌓인 화를 풀어주어 기능을 높여준다. 더불어 오장 육부를 튼튼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증진시킨다. 따라서 하루 2~3번 수저로 떠먹거나 따뜻한 물에 타 먹으면 피로가 쉽게 느껴지지 않으며, 노화예방 효과도 볼 수 있다.

*산들건강 : 02)778-4568 / 홈페이지 www.isandle.co.kr

코레일관광개발, 육·해·공코스 '유적기행'

코레일관광개발이 육(KTX)·해(패속선)·공(항공)을 통해 남도부터 제주도까지 즐길 수 있는 여행상품을 출시했다. 오는 5월부터 매일 출발하는 이 상품은 지난해 영화 '명량'의 주무대 우수영과 추자도 일주와 제주도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되었다.

첫째 날 오후 추자도에 도착 한 후 버스로 추자도일주를 즐긴다.

둘째 날에는 추자도 올레길을 걸으며 자유관광을 마치고 패속선에 몸을 싣고 제주항으로 향한다.

마지막날에는 원시림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샬리니숲길을 산책하고 신비의 숲 꽃자왈로 떠나는 기차여행 에코랜드 테마파크와 섬



지코지, 승마체험 등 제주도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다.

이렇게 제주도 여행을 마치고 제주공항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육·해·공으로 즐기는 남도와 제주도 여행이 마무리된다.

공연티켓·찰보리빵... 강강술래 '경품 대축제'

이달말까지 홈페이지 추천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sullai.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천을 통해 풍성한 선물을 증정하는 경품대축제를 벌인다.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폴란드, 천년의 예술' 전시회 티켓(1인2매)을 준다. 또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시설에서 생산된 안심 먹거리 '보리미 찰보리빵 선물세트(40입)'도 증정한다.



아울러 내 집을 감각있게 꾸미고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인테리어 정보를 총망라한 '싱글룸 인테리어의 모든

것'과 가장 살 빼기 어려운 허벅지 부위를 체력에 맞게 부위별로 나눠 총 42개 운동 동작, 7DAY S 프로그램 소개서 '하루에 한 동작 허벅지' 등 길벗 도서도 증정한다.

한편 이달 15일까지 소풍물과 전파주문을 통해 감사세트(한우 불고기1500g+한돈양념500g+돼지 양념750g+술래양념520g)는 36% 할인된 6만원, 영양만점세트(칠첩한우떡갈비360g+흑임자한돈 너비아니360g+통등심돈가스720g)는 40% 할인된 4만2000원에 판매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알파덤, 론칭 6개월 기념 전제품 할인

유아 화장품 알파덤의 공식 수입 업체인 범우데이터(대표 김지용)는 알파덤 전 제품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 10일 밝혔다.

국내 공식 론칭 6개월을 기념한 이번 이벤트에서는 '콜드 크림' '마사지 오일' 등을 비롯한 전 제품을 특가 판매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알파덤 공식 홈페이지(www.alpaderm.kr)를 참조하면 된다.

알파덤은 스위스 영·유아용 스킨케어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프랑스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에코서트와 코스메비오의 인증을



받았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콜드크림'은 그 동안 구매절차와 AS등이 번거로운 구매대행이나 인터넷

해외 직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공식 수입을 통해 구입이 쉬워졌다. 콜드크림은 부드러운 보습 효과를 통해 피부 건조에 기인한 가려움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수입차 전성시대... 베스트셀링카 '티구안'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는 폭스바겐 티구안으로 집계됐다.

아우디 A6와 폭스바겐 골프, BMW 520d는 뒤를 달렸다.

1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1~4월 누계 수입차 판매량에서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 모델은 3454대가 팔려 선두를 달렸다.

A6 35 TDI는 2363대로 2위, 골프 2.0 TDI는 2213대로 3위를 차지했다.

520d 모델은 2100대가 팔려 4위, 아우디 A6 45 TDI 콰트로 모델은 1859대가 팔려 5위를 기록했다.

이어 폭스바겐 파사트 2.0 TDI(1807대) △BMW 118d 어반(1538대) △메르세데스-벤츠 E 220 블루텍(1478대) △벤츠 C 220 블루텍(1462대) △렉서스 ES300h(1368대)가 각각 6~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판매량은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847대) △520d

아우디 A6·폭스바겐 골프·BMW 520d 뒤이어 달려



폭스바겐 티구안.

(615대) △E 220 블루텍(441대) △폭스바겐 제타 2.0 TDI BMT(403대) △BMW 520d x드라이브

(381대) △폭스바겐 골프 1.4 TSI(379대) △포드 익스플로러(356대) △벤츠 S 350 블루텍 4매틱

(348대) △골프 2.0 TDI(328대) △C 220 블루텍(326대) 순이다. 연료별로 보면 가솔린 모델은 지

난달 △골프 1.4 TSI(379대) △익스플로러(356대) △벤츠 E300 4매틱(263대) △BMW 528(211대) △토요타 캠리(207대) △닛산 알티마 2.5(198대) △벤츠 E 300(196대) △혼다 어코드 2.4(190대) △벤츠 C 200(187대) △벤츠 S 400 4매틱(172대) 등이 팔렸다.

디젤 모델은 △티구안 2.0 TDI 블루모션(847대) △520d(615대) △E 220 블루텍(441대) △제타 2.0 TDI BMT(403대) △520d x드라이브(381대) △S 350 블루텍 4매틱(348대) △골프 2.0 TDI(328대) △C 220 블루텍(326대) △BMW 320d(323대) △벤츠 E 250 블루텍 4매틱(308대) 순으로 판매됐다.

지난달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는 1만8202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1만6712대) 대비 8.9% 증가한 규모다.

올해 누계대수는 7만7171대로 전년 동기(6만1146대) 대비 26.2% 급증하며 성장세를 지속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국내 픽업트럭 시장 위기

현대차 '싼타크루즈'도 난감

국내 픽업트럭(집간 뚜껑이 없는 소형 트럭)시장이 멸종위기에 처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컨셉트 픽업트럭 '싼타크루즈'를 선보여 북미시장 진출 검토를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하지만 자국 시장의 브랜드 입지가 강해 난항이 예상되고 국내 수요도 미미한 수준이라 시장을 돌파할 전략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판매되는 유일한 픽업트럭은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로 올해 1분기 6008대가 판매됐다. 전년 동기에는 6721대, 지난해 4분기에는 7361대를 판매해 감소세를 기록했다. 또 다른 쌍용차 픽업트럭 모델인 액티언 스포츠와 무쏘 스포츠의 경우 각각 2011년, 2005년 이후 단종돼 중고차 시장에서나 구매할 수 있는 차종이 됐다.

쌍용차 관계자는 "코란도 스포츠는 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소량의 짐을 적재할 목적으로 구매한다"며 "향후 국내 픽업트럭 시장은 확대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 자동차 업체들도 국내 픽업트럭 시장이 너무 작아 국내 진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토요타와 닛산 딜러사 관

계자는 현재 공식 수입되고 있는 픽업트럭이 없고 본사에서 수입계획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도요타 관계자는 "국내 픽업트럭 시장 자체가 너무 작고 도요타 대표 픽업트럭 모델인 타코마도 국내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입 픽업트럭 시장은 소규모 업체들이 직접 수입해 들여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포드 관계자는 "F-150을 직수입해 국내시장에 판매하고 있지만 마니아 층이나 세컨, 써드카로서의 수요에 국한돼 있어 지난해에는 중고·신차를 포함해 120대가 판매됐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전체 자동차 판매량 1653만대 중 14%에 해당하는 232만대의 픽업트럭이 팔렸다. 미국의 경우 캠핑, 레저문화와 전원생활 가구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다양한 용도로 픽업트럭을 사용할 수 있어 수요가 높다. 또한 미국 시장조사업체 IHS 오토모티브는 미국 픽업트럭 시장이 2017년에는 273만대, 2020년 294만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용기기자 yonggi@



싼타크루즈.

벤츠·BMW·아우디

노키아 지도로 자율주행차 시장 견제

벤츠·BMW·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 3사가 중국 IT 회사인 바이두와 손잡고 핀란드 통신업체 노키아의 디지털 위치정보 서비스 'Here(히어)'를 인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10일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3사는 그동안 국내 제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성능이 떨어져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았던 차량 네비게이션 기능을 향상하는 동시에 구글의 자율주행차 시장 독점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근 벤츠·BMW·아우디 등은 히어 매입과 관련해 노키아와 접촉했다. 노키아가 지도 사업부문을 정리하며 히어의 주식 대부분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독일차 3사와의 협상은 조기에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협상이 계획대로 마무리된다면 독일차 3사는 히어의 지분의 과반이상을 확보하게 되며 바이두는 소액 주주가 된다.

독일차 3사는 히어를 통해 차량의 네비게이션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독일차 3사 고객은 차량에 내장된 네비게이션의 성능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특히 벤츠는 네비게



벤츠의 S클래스 차량의 네비게이션.

/유튜브 캡처

이션 지도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조작법이 불편해 고가의 차량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전례 없이 3사가 한 뜻을 모으는 것은 구글의 자율주행차 시장의 독점을 막겠다는 큰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위치정보 서비스는 자율주행차의 핵심이다. 구글은 올해 초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자체 파트너사를 공개하는 등 상용화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만약 구글이 자율주행차용 운영체제를 개발해 무료로 개방하면 자동차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시장이 안드로이드

개방으로 타격을 입은 것과 같이 자동차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독일차 3사는 히어의 인수를 약 21억 유로(한화 약 2조 5600억원)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양측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 단계에 있어 2주 이내에 협상이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현재 히어는 북미와 유럽에서 지난해 판매된 신차 중 약 1300만대에 네비게이션 시스템으로 탑재돼 있다. 네비게이션 장착 차량의 약 80%가 히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소리기자 10sound@



“대중과 공감대 형성할 거예요”

KBS2 ‘블러드’ 안방 신고식

손수현



배우 손수현(27)은 일본 배우 아오이 유우를 닮아 주목 받았다. 그러나 누군가의 아류로만 존재하기엔 손수현의 연기 열정은 확고했다. 지난 4월 종영된 KBS2 ‘블러드’를 통해 처음 드라마에 출연했다. 뱀파이어임을 숨기고 사는 민가연 역을 맡아 박지상(안재현)을 향한 풋풋하고 안타까운 외사랑을 표현했다.

“대본을 보면서 함부로 상상하면 안 된다”는 걸 느꼈어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기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도 제가 생각한 것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게 다르면 혼란스럽더라고요. 특히 혼자 대본을 읽을 때는 괜찮았는데 상대방이 대사를 하면 외위간 말이 소용 없어질 때도 있어요. 민가연이 뱀파이어인 건 저 역시 나중에 알았죠. 비밀을 간직한 캐릭터라는 설정만 갖고 연기했어요. 제가 대본을 잘

이야기했다.

“악성 댓글을 보면 울컥할 때가 있어요. 해명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근데 원래 안 좋은 걸 잘 잊어버리는 성격이에요. 편하게 사는 거죠, 대부분의 댓글은 ‘아오이유우 따라 한다’ ‘유우보다 못 생겼다’예요. 저 못생긴 거 같아요. (웃음) 외모에 관한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죠. 오히려 ‘연기 못한다’ 이런 글을 보면 상처받아요. 우울해진 적은 없지만 ‘두고 보자! 다음엔 잘 할 거다’라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죠.”

국악고등학교를 졸업한 손수현은 대학에서 아쟁을 전공했다. 소속사가 없는 상태에서 지인의 소개로 그룹 빅뱅의 대성 뮤직비디오 여주인공으로 발탁돼 연예 활동을 시작했다.

“세 살 차이나는 남동생은 ‘누나가 왜 연예인인지 모르겠다’고 해요. 처음 국악을 시작한 이유는 엄마가 하라고 해서

아쟁 전공… TV나오니 부모님도 흐뭇 아오이 유우 이미지 노력해서 바꿀 것 외모 관련 댓글보다 연기 지적 더 신경

못 읽은 줄 알았어요.”

손수현은 한국의 아오이 유우라는 별명에 대해 “노력해서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전문 모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만한 신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웃음)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피팅 모델을 했을 뿐이죠. 그렇다 보니 온라인에 사진이 많고 아오이 유우라는 굳어진 이미지가 있어요. 연기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안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외적인 부분으로 변화를 주려고 했어요. 공식석상에서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옷을 소년스럽게 입었죠. 그래도 평가는 똑같더라고요. 외적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배웠죠.”

악성 댓글에 상처받을 법하지만 “개치지 않는다”며 자신의 털털한 성격을

였죠. 그런데 아쟁을 잘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연기는 악기를 다룰 때 움직임에 익혀야 해서 배운 적이 있죠. 연예인 활동은 지금 소속사 대표를 만나 자연스럽게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악단에 들어가 공연하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 모두 ‘TV에 나오니까 좋다’고 말씀하세요.”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한 그는 대중과의 공감대 형성을 중시했다.

“신뢰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제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중의 호응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연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품이 공개되는 순간 저만의 것이 아니죠. 대중과의 교집합을 계속 고민할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꾸준히 대시할 겁니다. 결론은 파이팅이에요. (웃음)”

/전호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star bag

신곡 ‘그림자는 길어지고’ 발표

가수 세븐이 신곡 ‘그림자는 길어지고’를 8일 발표했다. 3년 만이다. ‘그림자는 길어지고’는 세븐이 주연을 맡은 뮤지컬 ‘엘리자벳’의 대표곡이다. 뮤지컬 ‘엘리자벳’은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인물인 황후 엘리자벳의 일생을 그린 작품이다. 6월 13일부터 9월 6일까지 블루스퀘어 삼성전 자홀에서 공연된다.



연극 ‘모범생들’ 엘리트 학생 변신

신인 배우 강영석이 연극 ‘모범생들’에서 엘리트 학생 서민영 역을 맡았다. 명문가에서 황제 교육을 받고 자란 그는 공부, 집안 등 모든 면에서 상위 0.3%에 드는 우월한 인물이다. 작품은 특목고 고3 학생들을 통해 비뚤어진 한국 교육의 현실과 비인간적인 경쟁 사회의 자화상을 이야기한다. 8월 2일까지 대학로 자유극장에서 공연된다.



현 소속사와 재계약 ‘의리’

배우 김래원이 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했다. 이번 재계약은 배우 김래원의 연기자적 역량과 HB엔터테인먼트의 체계적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한 2년의 시간이 만든 결과다. 김래원은 “안정적인 매니지먼트 지원 속에 연기하는 데만 집중하며 더 좋은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첫 소설 ‘파리 빌라’ 발간

배우 윤진서가 8일 첫 소설 ‘파리 빌라(La Villa de Paris)’를 발간했다. 산문집 ‘비브르 사 비’(2013) 이후 두 번째 작품이다. 소설은 찬란한 사랑의 순간과 그 사랑이 지난 후의 아픔, 여행한 도시에서 마주한 감정, 사랑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리는 두 여자의 이야기를 담았다.





아이돌 '혼자라도 괜찮아'

비스트 장현승·시크릿 전효성·인피니트 성규 솔로 앨범
티아라 은정은 이름까지 바꿔...그룹과 다른 색 표방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아다뒤 솔로 앨범을 발표하고 있다. 비스트 장현승, 시크릿 전효성, 티아라 함은정 등이 솔로로 나서며 그룹 활동에선 볼 수 없었던 매력을 마음껏 발산중이다.

비스트 장현승은 멤버 양요섭, 용준형에 이어 그룹에선 세 번째로 솔로 앨범 '마이(My)'를 8일 발표했다.

장현승은 앞서 같은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 식구인 걸그룹 포미닛의 현아와 트러블메이커라는 혼성 유닛으로도 활약한 바 있다. 당시 현아와 섹시한 무대로 연일 화제를 모으며 차트를 휩쓸었던 장현승은 이번에 '19금 순정남'이라는 콘셉트를 들고 나왔다.

래퍼 기리보이가 피쳐링에 참여한 타이틀곡 '내가 처음이야' 뮤직비디오에서 장현승은 차세대 섹시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황승언과 호흡을 맞췄다. 두 사람은 아찔한 장면을 연출하면서도 유머감을 잃지 않아 다소 모순되게 들리는 '19금 순정남'이라는 테마를 잘 풀 어냈다.

시크릿 전효성은 '섹시 디바' 엄정화·이효리의 계보를 잇는다는 각오다.

지난해 '굿나잇키스(Good-night Kiss)'로 솔로 신고식을 성공적으로 치른 전효성은 첫 미니앨범 '판타지아(FANTASY)

A)'를 7일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시크릿이 귀여운 섹시함을 표방했다면 솔로 전효성은 성숙한 여인의 향기가 물씬 풍긴다. 타이틀곡 '반해'는 데뷔 후 처음 랩에 도전한 그의 음악적 변신도 돋보인다.

지난 7일 진행된 쇼케이스에서 전효성은 "다시 한 번 섹시 코드로 나왔는데, 매력적인 콘셉트라 놓치고 싶지 않다"며 "하지만 항상 섹시함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대중이 바라봤을 때 건강하고 파워풀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섹시한 디바가 되는 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티아라 함은정은 엘시(Elsie)라는 예명으로 케이윌과 호흡을 맞춘 솔로곡 '혼자가 편해졌어'를 발표했다. 애절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발라드 곡으로 댄스곡 위주로 활동했던 티아라 때와 180도 변신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피니트의 리더 성규도 약 3년 만에 두 번째 솔로 앨범으로 컴백했다. 11일 오전 0시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 성규 솔로 2집 '27'은 록밴드 넬의 김종완이 총 프로듀싱을 맡았다. 또 한국인 최초 데프잼(DEF JAM) 소속 작곡가인 스페이스보이, 에픽하이 타블로 등이 이번 앨범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성규는 더블 타이틀곡 '너여만해'와 '콘트롤'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김지민기자 langkim@



임흥순, 한국작가 최초 '은사자상'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한국작가 임흥순(46)이 9일(현지시간) 제 56회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의 국제전 시상식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했다.

임흥순은 아시아 여성의 노동문제를 소재로 한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촬영한 95분 분량의 영화 '위로공단'으로 이번 상을 받았다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전했다. 한국 작가로서 본전시 첫 수상이며 역대 최고상이다.

임 작가는 "40년 넘게 봉제공장에서 '사' 생활을 해 오신 어머니와 백화점 의류매장, 냉동식품 매장에서 일해온 여동생의 삶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임 작가는 경원대 회화과 학사·석사를 거쳐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올해의 예술상'에서 독립 예술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2013년 제주 4·3 사건과 강정마을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비남'을 첫 장편 다큐멘터리로 선보였다.

/김지민기자



극장가에 불어오는 女風

전도연·임수정·고준희
전형성 탈피 변화기대

최근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으로 초도화된 극장가에서 한편의 한국영화가 조용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혜수, 김고은 두 여배우의 조합으로 관객 마음을 사로잡은 '차이나타운'이 그 주인공이다. 올해 유난히 침체돼 있는 한국영화가 '차이나타운'으로 시작된 '여풍(女風)'으로 활기를 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총무로 대표 여배우들의 활약을 내세운 영화들이 개봉을 앞 다투며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오는 28일 개봉하는 '무뢰한'(감독 오승욱)은 전도연이 주연으로 나오는 작품으로 영화계 관심이 높다. 전도연은 '무뢰한'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단란주점 마담으로 변신해 김남길과 호흡을 맞췄다.

하드보일드 멜로를 표방한 영화는 어두운 남성적인 세계 속에서 더욱 애절한 사랑의 감정을 그린다. 전도연은 "느와르나 하드보일드라고 하면 남성 중심의 영화가 많은데 '무뢰한'은 그 중심에 사랑에 대한 거친 감정이 있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작품 선택 이유를 밝혔다.

배우 임수정은 오는 6월 개봉을 앞둔 영화 '은밀한 유혹'으로 3년 만에 스크린에 컴백한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여자와 그런 여자에게 인생을 완벽하게 바꿀 제안을 하는 한 남자의 위험한 거래를 다룬 범죄 멜로 영화다.

임수정은 "대본을 처음 본 순간 반했다.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앞으로의 일이 예측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긴장감이 있고 서스펜스도 강했다. 캐릭터도 매력적이었다"고 출연 이유를 설명했다.

고준희는 오는 6월 개봉 예정인

'나의 절친 악당들'로 진짜 배우로서 출사표를 던진다. 임수정 감독의 신작이자 배우 류승범의 2년 만의 복귀작으로 화제인 영화다.

고준희는 세상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는 거침없는 성격으로 록카차를 운전하는 캐릭터 나미 역을 맡았다. 거칠고 섹시한 매력을 뽐낸 것은 물론 대역 없는 맨몸 액션 연기 투혼까지 발휘했다. 임수정 감독은 "촬영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다. 성장하는 모습이 느껴져 매일 매일이 행복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밖에도 박보영, 엄지원 주연의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과 엄정화가 주연을 맡은 '미쓰 와이프'가 각각 6월과 7월 개봉을 준비하고 있다. 전형성에서 탈피한 새로운 여성 캐릭터의 등장이 한국영화에 어떤 신선한 변화를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남성 중심 첩보영화 공식 깬 전복의 쾌감

film review

/장병호기자

■ 스파이

'007' 시리즈로 대변되는 첩보영화는 자칫 남성 중심적인 장르다. 첩보영화가 여성 캐릭터에게 요구하는 역할은 늘 제한적이었다. 주인공의 조력자가 되거나 주인공을 위기로 몰아넣는 팜프파탈이 되는 것, 두 가지 선택지 외에 다른 대안은 없기 때문이다. '스파이'는 이런 첩보영화의 관습을 산산 조각낸다. 세상에 없던 여자 스파이의 이야기로 신선한 충격과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영화는 CIA 내근직 요원으로 일하던 소심한 성격의 여자 수잔 쿠퍼(멜리사 맥카시)가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현장 요원으로 투입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주드로, 제이슨 스타뎀 등이 수잔과 엮이는 CIA 요원으로 호흡을 같이 맞췄다.

똥똥하다는 이유로 자존감이 없는 수잔에게는 다른 남자 스파



이처럼 멋들어진 총도, 최첨단의 무기도 주어지지 않는다. 호신용 호루라기, 무좀 스프레이, 멀티 슈처럼 하찮은 도구만을 지급받고 현장에 뛰어든 수잔은 그러나 여느 스파이 못지않은 활약을 보이며 작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간다. 그동안 감춰왔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은 수잔이 그동안 부족했던 자존감을 되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무척 즐겁다.

기본적으로는 코미디에 방점이 찍힌 영화지만 탄탄한 구성으로 짜임새 있는 이야기가 첩보영화로

서의 제 역할도 충분히 해내고 있다. 물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캐릭터의 매력이다. 멜리사 맥카시는 천연덕스러운 연기로 비호감에 가깝던 수잔 쿠퍼를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만들어낸다. 자신의 외모를 놀리는 남성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작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며 수잔의 감춰진 매력에 빠져 들지 않을 수가 없다. 허세로 가득한 요원 릭 포드 역의 제이슨 스타뎀도 기존 이미지를 완전히 벗고 웃음보를 터뜨리게 한다.

15세 이상 관람가. 5월 21일 개봉. /장병호기자

배신, 야망, 그리고 체스



◆ 5/13 2PM FIRST TICKET OPEN ◆

THE MUSICAL 체스

CHESS

Book by Richard Nelson

Lyrics by Tim Rice

Music by Bjorn Ulvaeus and Benny Andersson

"CHESS" is presented by special arrangement with SAMUEL FRENCH, INC.
in association with BROADWAY ASIA COMPANY, LLC

2015.6.19 ~ 7.19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신성우 • 김장섭 • 김법래 • 박선우 • 이건명 • 홍경수 • 박선효 • 안시하 • 김금나 • 이정화 • 조권 • Key • 신우(B1A4) • 켄(빅스)

[프로듀서] 김선미 [연출] 왕용범 [공동연출] 이상준 [안무] 서병구 [행복연출] 유병은 [협력안무] 홍유선 [조명디자인] 민경수 [무대디자인] 서숙진 [음향디자인] 권도경 [영상디자인] 송승규 [의상디자인] 한정임 [분장디자인] 양희선 [소품디자인] 조윤형 [기술감독] 이유원 [제작감독] 김완식
[제작] (주) 엔뮤지컬아트 [제작지원] CIBO 기술보증기금 [후보] SHOWHOLIC [메이커] 인터파크 (1544-1555) [티켓] (1566-1369) [문의] (주) 엔뮤지컬아트 (02-764-7857-9) ENT (1644-5210)



미나, 韓-홍콩 합작 드라마 OST 불러

▶ 지상파 한 주 몰아보기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중화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가수 미나가 한국-홍콩 합작 드라마 '7일간의 로맨스' OST에 참여했다.

미나가 부른 '7일간의 로맨스'의 네 번째 OST '가만히'는 이별의 아픔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자의 슬픈 마음을 노래한 곡으로 9일 발매됐다.

'가만히'는 SBS '청담동 스캔들'의 '우리 헤어진다면', KBS '고양이는 있다'의 '사랑한다 말하는 건' 등 여러 드라마 OST를 작곡한 뮤지션 배드보스(조재윤)가 프로듀싱을 맡았다.

앞서 미나는 중국 CCTV 드라마 '오아양광' 주제곡 '사랑은 아직 있다'를 중국어로 노래한 적은 있으나 한국어로 드라마 OST를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나는 2002년 '전화받아'로 국내에 데뷔, 2011년 'Toy Boy'로 QQ뮤직 차이나 K-팝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다.

이후 2013년 '애정 사라라'로 중국 음악 차트 바이두에서 전체 차트 4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모았다. 또 한중 수교 22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한중 드라마 OST 콘서트' 사회를 맡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한편 '7일간의 로맨스'는 god 멤버 데니안과 홍콩 톱스타 프리실라 잉이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김지민기자 langkim@



■ A경사 성추행 혐의로 통편집

MBC 예능프로그램 '경찰청 사람들 2015'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 경사를 통편집했다. 7일 서울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사는 지난해 6월~8월 수차례에 걸쳐 여대생 B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사건 조사는 A 경사가 소속돼 있는 경찰서가 아니라 상급 부서인 서울경찰청 특별조사계에서 하고 있다. 8일 MBC 측은 "A 경사와 더이상 추가 녹화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혐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 tvN '꽃할배' 가고 '삼시세끼' 온다

나영석 PD의 tvN '꽃보다 할배 - 그리스 편'이 8일 유종의 미를 거둔 가운데 그의 또다른 대표작 '삼시세끼' 정선 편 예고 영상이 공개됐다.

'삼시세끼-정선편'에서는 원년 멤버 이서진·옥택연에 이어 김광규가 새로 합류한다. 공개된 영상에서 의욕 충만한 이서진 농부, 힘만 센 택연 농부, 힘도 없는 김광규 농부는 한적한 밭을 배경으로 첫 방송 소식을 알린다. 특히 성장한 밭기·잭슨의 모습과 새롭게 등장한 잭슨의 2세 다이나, 흑염소 펠의 존재감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나영석PD는 "농사 일손이 부족한데 김광규는 농사를 잘 할 것 같은 이미지라 고정 멤버로 캐스팅하게 됐다"며 "세 남자가 서툴지만



tvN '삼시세끼-정선편' 이서진·택연·김광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농사와 요리를 한다. 시청자도 대리만족을 느낄 것"이라고 관전 포인트를 설명했다. '삼시세끼 - 정선편'은 '꽃보다 할배 - 그리스 편' 후속으로 오는 15일 오후 9시45분 첫 방송된다.

TV 하이라이트

빅토르 안, 안현수의 두 개의 조국



'휴먼다큐 사랑' 안현수와 그의 아내 우나리.

◆ MBC '휴먼다큐 사랑'

오후 11시15분

안현수, 두 개의 조국 하나의 사랑'편 2부작 중 1부가 방송된다. 2008년 부상과 팀의 해체로 하루아침에 세계 챔피언에서 백수가 돼 모국을 뒤로 한 채 러시아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했던 안현수가 삶의 밑바닥에서 그를 일으켜 준 아내 우나리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한다. 다큐 내레이션에 처음 참여하는 배우 이우리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정라=이우리기자 yuril@

◆ KBS2 '안녕하세요'

오후 11시10분

신곡으로 돌아온 가수 전효성·김성규·김예림과 마성의 남자 홍진호가 출연한다.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울화통이 터질 것 같은 30대 남자, 스물네 살에 사랑에 빠진 남동생 때문에 고민인 누나 등이 2승에 도전하는 '언프리티 내 딸'과 경쟁한다.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40분

가수 케이윌이 충격적인 냉장고를 공개한다. 자취 10년 차 싱글남인 그는 평소 별명이 '발효과학 박사'라며 경악스러운 냉장고 속을 보여준다. 하지만 셰프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을 수 없는 요리를 선보여 케이윌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



◆ SBS '힐링캠프 - 기쁘지 아니한가'

오후 11시15분

유호정 2편이 방송된다.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유호정에 대한 풍문을 폭로한다. 고아성은 유호정이 노는 언니였다고 하고, 서정연은 그녀가 사모님 놀이를 즐긴다고 한다. 최지우가 출연해 또 다른 풍문을 전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특! 특! 보니 하나 1 (2836회) 05 출동! 슈퍼왕스 25 내 친구 아서 45 발명이 광광!
18시						
19시	00 KBS 뉴스 7 30 인순이의 토크 드라마 그대가 꽃	50 오늘부터 사랑해 (26회)	15 불굴의 차여사 (87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104회)	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30 EBS 뉴스 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5 곰디와 친구들(한국어) (재) 25 꼬마 철학자 휴고(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꼬마 철학자 휴고(한국어) (재) 50 몬스터 수화나라(영어) (재)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1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12회)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입구정 백야 (145회)	00 SBS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10 Real Fun World4 (재) 10 몬스터 수화나라(한국어) (재) 20 스쿨랜드-틴틴인터뷰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10 몬스터 수화나라(한국어) (재) 10 스쿨랜드-틴틴인터뷰 30 공부의 왕도 (재) 10 EBS스타강사특강
22시	00 가요무대 30년 가정의 달 기획 가요무대	00 후아유 - 학교 2015 (5회)	00 화정 (9회)	00 풍문으로 들었소 (23회)	45 달라졌어요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사선에서>
23시	3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가정의 달 특집 휴먼다큐 사랑 10주년 안현수, 두 개의 조국 하나의 사랑 1부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3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재)
24시	10 KBS 뉴스 15 해외결작드라마 삼총사 시즌2 (5회)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특파원 현장보고 (재)	25 MBC 뉴스 24 4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EBS 인문학 특강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김제동의 특투유 (2회) (재)	00 꽃보다 할배 in 그리스 (7회) (재)	10 오늘 뭐 먹지? (57회)			05:10 LA다저스 vs 볼로라도 (MBC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40 리틀빅 히어로 (44회)	00 샘과 레이먼의 올리브 쿠킹타임 듀엣 (11-18회)	00 <극한직업>말레이시아 펠나무 농장	20 나는 왕이로소이다	
20시	50 JTBC 뉴스룸	40 명단공개 (62회)	00 오늘 뭐 먹지? (61-60회)	00 우포늪의 사람들		
21시	40 냉장고를 부탁해 (26회)	40 식사를 합시다 2 (10회) (재)	10 올림포스 2015 스페셜 (2회)	00 코스모스 (11회)		
22시			30 오늘 뭐 먹지? (61회)	00 코스모스 (12회)	00 나우 유 씨 마:마술사기단	
23시	00 비정성회담 (45회)	00 식사를 합시다 2 (11회)	05 오늘 뭐 먹지? (54회) 45 샘키의 함께꾸림 (7-8회)	00 항공사고 수사대:에어 크래쉬 (25회)		
24시	30 맞춤형 하우스 체인지 프로젝트 우리집 (11회)	20 코미디 빅리그 (120회) (재)	10 2015 테이스티로드 (17회)	00 <극한직업>말레이시아 펠나무 농장	00 스타트렉:다크니스	

11월 (월)



손흥민 18호골 사냥 또 실패

‘손세이셔널’ 손흥민(23·레버쿠젠)이 시즌 18호 골 사냥에 또 실패했다.

손흥민은 9일(현지시간) 독일 보루시아 파크에서 열린 2014-2015 분데스리가 32라운드 뮌헨 글라드바흐와의 원정경기에서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풀타임 활약했지만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4경기째 무득점이다.

손흥민은 좀처럼 슈팅 기회를 잡지 못하다가 전반 38분 키슬링의 헤딩 패스를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회심의 논스톱 슈팅을 시도했다. 볼은 뮌헨글라드바흐 골대 오른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듯했으나, 골키퍼의 손끝에 막혀 아깝게 골문 밖으로 벗어났다. 레버쿠젠은 후반 내리 세 골을 내주며 0-3으로 완패했다.

이날 패배로 정규리그 두 경기를 남겨 놓은 4위 레버쿠젠은 3위 뮌헨글라드바흐와 승점이 5로 벌어지며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직행권(1~3위) 확보가 쉽지 않게 됐다.

경기 후 독일 언론 빌트는 손흥



손흥민이 9일(현지시간) 독일 보루시아 파크에서 열린 2014-2015 분데스리가 32라운드 뮌헨 글라드바흐와의 원정경기에서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드리블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평점5로 팀내 최하...이정용 후반 교체출전

민에게 찰하노글루, 힐버트, 벤더 등과 함께 팀 내 최저 평점인 5점을 부여했다. 빌트지 평점은 1~6점이며 낮을 수록 좋다.

한편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수 흥정호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원정 경기에서 후반 32분 옐로카드를 받았지만, 풀타임을 뛰며 팀의 1-0 승리를 지켜냈다. 공격수 지동원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구자철이 후반 교체 출전한 마인츠는 슈투트가르트와의 원정경기에서 후반에만 두 골을 내주며 0-2로 패했다. 박주호는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정용(크리스털 팰리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39분 교체출전해 10여 분간 활약했다. 팀은 1-2로 졌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메시·호날두 나란히 무득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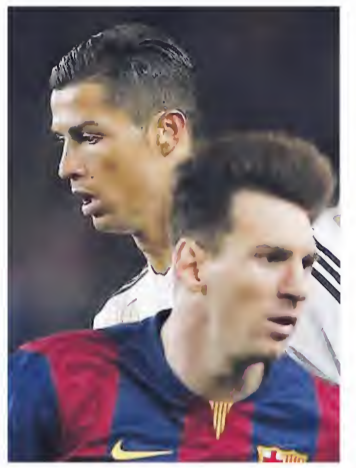
바르셀로나 1승만 추가하면 프리메라리가 우승

스페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리오넬 메시(FC 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나란히 득점 사냥에 실패했다.

바르셀로나는 10일(한국시간) 스페인 캄프누에서 열린 2014-2015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36라운드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홈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메시는 이날 득점은 실패했지만 두 골 모두 어시스트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후반 5분 메시가 소시에다드 페널티지역 구석에서 골문 쪽으로 크로스한 볼이 수비수의 머리를 스치며 흘렀고, 이를 네이마르가 뛰어들며 헤딩골로 연결시켰다. 후반 40분에는 페널티박스 안에서 메시가 패스한 볼이 수비수 몸을 막고 튀어오르자, 페드로가 오버헤드킥으로 추가 골을 성공시켰다.

레알 마드리드는 발렌시아와의 홈경기에서 2-2로 비겼다. 0-2로 뒤지던 후반 11분 페페가 만회골을 터트린 데 이어 39분 이스코가 동점골을 작렬시켰지만 역전에는 실패했다.



메시와 호날두.

호날두는 전반 종료 직전 가레스 베일이 얻은 페널티킥의 키커로 나섰지만 실축했다. 다만 리그 42호골을 기록 중인 호날두는 이날 메시(40호골) 역시 득점 사냥에 실패하며 득점 부문 선두는 유지했다.

바르셀로나는 승점 3을 추가해 승점 90을 기록했다. 레알 마드리드(승점 86)가 승점 1점을 얻는 데 그쳐 바르셀로나는 남은 두 경기 가운데 1승만 보태면 리그 우승을 확정할 수 있게 됐다. /김민준기자

강정호 5번째 멀티히트

수비선 트리플플레이 진기록... 추신수 9경기 연속 안타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며 시즌 5번째 멀티히트를 작성했다.

강정호는 10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홈경기에서 6번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 4타수 2안타 2득점을 기록했다.

7일 신시내티 레즈전에 시작한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다. 시즌 타율은 0.300에서 0.318(44타수 14안타)로 올랐다.

특히 수비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펼쳤다. 0-0이던 2회초 무사 2, 3루에서 2루수 닐 위커와 호흡을 맞춰 트리플 플레이를 기록했다.

야디에르 몰리나의 강한 직선타를 뛰어오르며 잡아낸 위커는 2루주자가 3루 쪽으로 많이 이동할 걸 파악하고, 3루로 먼저 공을 던졌다. 3루수 강정호는 위커의 송구를 받고 3루를 밟아 조니 페랄타를 아웃 처리했다.

이어 2루로 공을 던져 귀루하지 못한 제이슨 헤이워드를 아웃 처리했다. 2루수-3루수-2루수로 이어진 트리플 플레이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 나온 진기록이다. 피츠버그는 7-5로 승리했다.

한편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번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1안타 1볼넷으



강정호

추신수

로 9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시즌 타율은 0.165에서 0.169(89타수 15안타)로 조금 올랐다. 텍사스는 탬파베이에 2-7로 무릎을 꿇어 2연패를 당했다.

/김민준기자

이대호 4경기 연속 홈런포

시즌 10호 퍼시픽리그 공동 1위

5월 들어 펄펄 날고 있는 ‘빅보이’ 이대호(33·소프트뱅크 호크스·사진)가 4경기 연속 홈런포를 날렸다.

이대호는 10일 일본 후쿠오카 야후오쿠돔에서 열린 라쿠텐 골든이글스와 홈경기에서 5번 지명타자로 나와 3-0으로 앞서던 4회말 좌월 3점 홈런을 터뜨렸다. 1사 1, 2루에서 라쿠텐 선발투수 도무라 겐지의 시속 136km짜리 커터 초구가 가운데로 들어오자 그대로 받아쳐 아치를 그렸다.

최근 4경기 연속 홈런이자 시즌 10호로, 퍼시픽리그 홈런레이스에서 이날 홈런을 더하지 못한 나카다

쇼(10홈런·니혼햄)와 공동 1위로 올라섰다.

이대호는 1회말 첫 타석에서 우익수 앞타를 치고 10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이어 3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같은 방면 안타를 추가했다. 5회말 네 번째 타석에서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고, 7회말에는 2사 2루에서는 중견수 뜬공으로 쉬어갔다.

이날 3점 홈런을 포함해 4타수 3안타 3타점 2득점의 맹활약을 펼친 이대호의 타율은 0.281에서 0.295(132타수 39안타)로 올랐다. 소프트뱅크는 10-1로 승리했다.

/김민준기자



전인지 JLPGA 메이저대회 살롱파스컵 우승

이보미 상금순위 1위 도약

전인지(21·하이트진로)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4대 메이저대회 가운데 하나인 월드레이디스 챔피언십 살롱파스컵(총상금 1억2000만엔) 우승을 차지했다.

전인지는 10일 일본 아바라키현 이바라키 골프클럽 동코스(파72·655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2언더파 276타의 성적을 낸 전인지는 우에다 모모코(일본)를 4타 차로 넉넉히 따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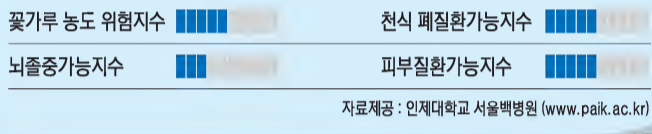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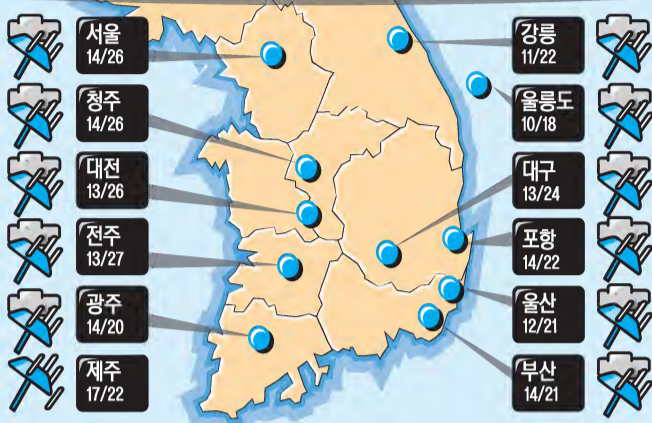
JLPGA 투어 사상 최초로 투어 첫 출전에 메이저를 제패하는 기록을 세운 전인지는 우승 상금 2400만엔(약 2억1000만원)을 받았다.

이보미(27)가 4언더파 284타로 3위에 오르며 시즌 상금 4557만 엔으로 상금 부문 1위가 됐다. 또 올해의 선수(198점)와 평균 타수(70.79타) 부문에서도 모두 1위에 올랐다. /김민준기자

날씨

5/11 월 ☀️ 일출 시각 05:27 ☾ 일몰 시각 19:3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 세로3x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9		8			2
6			3			
	1		2			4 6
			5			9
2						1
	6			1		
5		1			7	8
				5		3
	3		2			4 5

스도쿠 정답

5	4	8	9	1	6	3
8	1	6	2	7	9	5
6	8	9	1	5	4	2
2	9	1	6	3	7	8
8	2	6	9	7	1	5
1	9	7	2	5	8	6
9	5	4	8	2	6	9
8	9	6	1	3	7	5
1	2	3	7	5	8	9

4		2	9			
	9			1		6
5					2	
					7 3	
2			3	7		1
	7 5					
		8				2
7		5				8
			6	3		4

4	2	9	8	1	5	6
6	8	9	3	7	2	1
2	9	1	6	3	7	8
8	2	6	9	7	1	5
1	9	7	2	5	8	6
9	5	4	8	2	6	9
8	9	6	1	3	7	5
1	2	3	7	5	8	9

문제 제공 = **보부스**
'멘사 스토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톱고 지음)

시사 四字成語

曲學阿世 언론 협찬의 본질

<굽을 곡, 배울 학, 아부할 아, 세상 세>

MBN·채널A·TV조선 등 종합 편성채널(중편)들의 이른바 '협찬' 관행 속내가 일부 빠져 나오면서 언론계가 어수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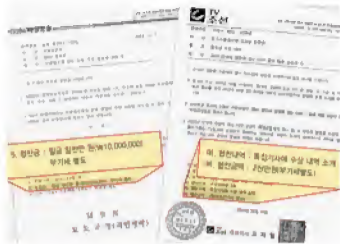
최민희 의원은 종편측이 광고주에게 보낸 협찬공문까지 공개하며 "종편들의 불법 또는 탈법적인 협찬 영입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문과 달리 방송은 한정된 전파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엄격한 공정성을 요구받습니다.

언론사도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으로서의 속성을 가지는 만큼 자본의 힘앞에서 곡학아세(曲學阿世)할 위험이 상존합니다.

1987년 이후 정치권력에 의한 언론 검열과 통제는 상대적으로 완화됐지만, 재벌을 비롯한 자본에 의한 언론통제는 사실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KBS·MBC 등 공영방송사는 별도 공기업인 미디어랩(코



최민희 의원실이 공개한 일부 종편의 기사 협찬 공문. /출처-한겨레

바코)을 통해서만 광고를 유치해 배정받게 하고 있지.

2011년 12월1일 개국한 종편들도 애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경영안정화 논리에 밀려 3년간은 종편의 자체 광고유치를 허용하고 그 후에는 SBS처럼 방송사별로 자회사 성격의 미디어랩을 만들어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른바 '협찬'입니다. '광고'는 시청률 등 영향력에 따라 매겨지는 언론사별 단가에 맞춰 하는 게 원칙이고 이렇게 하면

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협찬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협찬은 애초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옷이나 액세서리, 무대 소품 등을 중심으로 개발된 마케팅 수법이죠. 이게 언론사의 보도와 관련해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돈 거래를 하는 것으로 개념이 확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협찬은 태생적으로 편집국 또는 보도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합리적인 단가 측정방법도 없습니다.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 특히 재벌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기사가 실종되다시피하고 반대로 용비어천가 류의 총수 칭송 기사와 보도물이 범람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결국 '협찬'은 자본과 주류언론들의 야합이 만들어낸 일종의 먹이 사슬이면서 동시에 중소 매체들을 조종하는 대자본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강세준기자 skang715@



김상희의 사주속으로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평생 혼자 살아야 하나요 2017년 결혼운... 심사숙고 하시길

청실홍실 여자 77년 8월 25일 양력 14시경

Q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주팔자라는 것은 인생의 로드맵(Road map)으로 인생지도에 따라 살게 되어 있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잘 적용하여 나가므로 운을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저의 고민도 해결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상담 올립니다. 저는 1977년 8월 25일 양력 오후 2시가 저의 생일입니다. 내일모레가 40세인데 아직도 싱글입니다. 일전에 어느 철학원을 갔었는데 저의 사주 안에 고관살(홀로 살아가야 하는 여자)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저는 평생을 혼자 살아야 하나요?

A 태어날 때 부여받은 생년생시를 정해진 일정공식에 대입해서 사람의 운명을 추론하는 학문인 사주명리 학이며 그 명맥이 수천년 이상 이어져 내려오면서 계승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타고난 사주팔자와 운의 흐름을 알고 대처하며 각자의 후천적인 노력이 더해질 때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하거나 안정을 이루며 살 수가 있습니다. 청실홍실님이 말한 고관 살은 전설 속에 나오는 새로 외로워 구슬피 운다고 하는 고관살(孤鸞殺):고독할 고, 관(鸞):입니다. 또 다른 용어로 일명 신음살(呻吟煞)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여자사주에 영

향을 많이 줍니다. 남편과 생사이별(生死離別)을 하게 된다는 고독한 홍신(凶神)이 되기도 하는데 통상 부부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나 비호기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며 심하면 사별하게 되는 공방살(空房殺)이 있으니 부부가 서로 떨어져 살거나 한 집에 살아도 다른 방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귀하는 바른 마음의 소유자인 정록(正祿)으로 록(祿)은 상상이 건전하고 자립심이 강하며 자기 주관이 확고하여 지수성(正)가 할 수 있는데 부드러움보다는 청백하여 주변과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이 혼자 사는 요인이 됩니다. '대물보가 되는 나무'의 형상으로 재물인 재성(財星)에 보배로운 귀인(貴人:어려운 때 도움을 주는 길함)이 있으나 그동안 역할을 못하다가 2016년에 묵었던 것이 풀리니 직장 다니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017년 결혼 운이 들어오는데 약속하고는 어쩌다가 깨질 수 있으니 결혼에 대해서는 보편적 일반 다른 사람들에 비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5월에는 악기를 배우면 머리가 맑아지게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5월 11일 (음 3월 23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48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시기입니다. 60년생 너무 자만심을 갖지 마세요. 72년생 일마다 여의하니 천금을 얻을것입니다. 84년생 가까운 곳에 여행을 떠나세요.



52년생 농부는 경작을 학자는 독서를 즐기세요. 64년생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76년생 재미있는 하루가 될 것 입니다. 88년생 그동안 노력한 것이 조금씩 결과가 보여집니다.



56년생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68년생 괴로운 심경입니다. 80년생 귀하의 인생을 되새겨 보세요. 92년생 꾸준히 노력하세요.



49년생 모든 것이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될것입니다. 61년생 밖으로 나가세요. 73년생 혼자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85년생 건강을 조심하세요.



53년생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우세요. 65년생 주변의 이들에게 칭송이 대단합니다. 77년생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89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57년생 늦게라도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69년생 건강을 조심하세요. 81년생 귀인을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만나게 될것입니다. 93년생 선천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이 있을것입니다.



50년생 건강운이 흥합니다. 62년생 재수가 좋을 것입니다. 74년생 앞선 수임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86년생 주변의 친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문제가 해결됩니다.



54년생 주변의 사람들에게 늘 배풀면서 사세요. 66년생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78년생 현재의 막힌 상태를 한탄하지 마세요. 90년생 막혔던 돈줄이 풀립니다.



58년생 말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70년생 귀인의 도움을 얻어 순조로이 문제를 해결 나갑니다. 82년생 시험을 봤으면 두말할 필요 없이 합격입니다. 94년생 방황할 수 있겠습니다.



51년생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자신도 있겠으나 참으세요. 63년생 정신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할것입니다. 75년생 뜻대로 이루어져 크게 이룰 것입니다. 87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55년생 돌아오는 것이 큰 것이라 길운입니다. 67년생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될것입니다. 79년생 이곳저곳에서 이익을 들이느라 바쁩니다. 91년생 남쪽에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59년생 자중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71년생 여행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3년생 부수를 알아야 합니다. 95년생 항상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가격없는 물건도 훔치거나 뺏으면 당연히 범죄”

법원 “무료지도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 등 성립”

“무료지는 공짜로 가져가라고 내놓은 거 아니냐? 그걸 좀 많이 가져갔다고 해서 왜 죄가 되느냐?”

지난달 8일 발생한 신세계 이마트 직원들의 메트로신문 강탈사건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항변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법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형법상 강도죄나 절도죄에서 문제되는 ‘재물’은 해당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재화로서의 효용성과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 즉 소유주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사용한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무료 제공이지만 생산 비용이 전제된 만큼 재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직장인 이모(40·경기도 부천시)씨는 2009년 1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재 원미1동사무소 내에 설치된 신문가판대에서 부천신문 25부를 한꺼번에 가져가다 절도죄로 고소당했다.

당시 대법원은 “비록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이지만 피해자가 광고 수익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를 발행하며 구독자들에게 1부씩 골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직접적 관리를 하고 있는 점에서 그 소유

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를 퇴사한 직원이 관련 문서 사본을 반납하지 않아 절도죄가 적용된 사례도 있다.

1986년 9월 당시 대법원은 “위 서류들이 비록 이미 공개된 기술내용에 관한 것이며 외국회사에서 선전용으로 무료로 배부해 줬다 해도 회사의 소유권 대상으로 판단할 경제적 가치가 있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단순)절도죄에 해당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나

와 있다.

한편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중구 남창동 지하철4호선 회현역 7번 출구 근처에서 신세계 그룹 직원 2명이 메트로신문 배포도우미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신문을 강제로 빼앗고 또 다른 신세계 직원은 배포대에 놓여있던 신문지 40여부를 탈취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세계 이마트 측은 사건 직후인 9일 <화이트 페이퍼>를 통해 “정용진 부회장의 사진이 1면에 게재돼 있기에 팀에 보고하기 위해 10여부를 가져간 것 뿐”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신문을 탈취하고 달아난 신세계 직원 2명을 상대로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특수강도

죄,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수강도죄 형법 제334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성재(법무법인 천고) 변호사는 “무료지라 하더라도 편집, 발행을 위해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문의 재물이라고 볼 수 있다”며 “2인 이상이 배포 도우미를 상대로 강제로 빼앗고 사건 외중 폭행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는 단순 재물죄가 아닌 특수강도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홍원기자 hong@metroseoul.co.kr

검찰, 成측근 조사... 이완구 소환 가능성

선거당시 재구성해 돈 전달 시기·방법 재확인 나서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화살을 겨누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성 전 회장의 측근을 조사하자 이 전 총리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10일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3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하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를 재구성하고 있다. 수사팀은 당시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 사무소를 방문할 때 동행한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금모씨, 운전기사 여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당시 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봤다고 밝힌 캠프 자원봉사



이완구 국무총리가 4월 27일 오후 이임식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완구 총리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연합뉴스

자 한모씨도 재소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 전 회장이 캠프를 방문한 정확한 시기와 돈 전달 방식 등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금품 수수가 4월 4일로 지목됐으나 다른 날일 수도 있다는 진술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당시 이 총리의 비서관이었던 김모씨 등을 소환 대상에 올려놓고 이들 조사가 마무리 되는데로 이 전 총리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1억 수수 혐의를 받는 홍 지사의 당시 비서관인 신모씨를 불러 홍 지사가 한 진술의 진위를 확인키로 했다. 홍 지사는 8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17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홍 지사가 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 인멸 혐의 적용이 가능할 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금품 수수와 회유 등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연미라기자 actor@

합수단 ‘기무사 군무원’ 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에게 군사 기밀 100여건을 유출한 기무사 소속 군무원이 구속됐다.

10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군사기밀을 빼내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 측에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군사 II·III급 비밀’ 자료를 비롯해 장성급 인사들의 신원정보와 각종 무기체계 획득 사업 정보, 국방부·방사청 내부 동정 보고서 등 군형법 상 군사상 기밀 자료 110여건을 포함한 140여건의 기무사 내부 자료를 이 회장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무사 소속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변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일광공영에 대한 기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회장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방위사업 비리로 구속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숨겨 놓은 각종 사업 관련 비밀 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연합뉴스

수집해주면 사례하겠다는 이 회장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에 따르면 변씨는 기무사 내부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 1회당 50만원씩 모두 20회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3월 31일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무기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101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연미라기자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 접수통지 안하면 위법

재판절차문제로 사건 되돌려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0월 지인의 체크카드에서 2500만원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특수절도와 장물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건들이 모두 병합돼 심리를 했고 징역1년6월에 처해졌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씨에게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고도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주지 않았다. 이때문에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씨가 직접 작성한 항소이유서 등은 제출됐지만,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국선변호인



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줘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했어야 한다”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연미라기자

“간큰 약사... 같은 처방전으로 2500회 대체 조제”

무려 2년 넘게 처방전 하나로 2568 차례나 대체조제한 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10일 의사 처방전과 같은 의약품에 대체 조제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 송모(68)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0년 12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시 약국에서 처방약을 만들 때 의사가 적어준 회사의약품 대신 성분이나 효능이 같은 다른 회사의 약품을 조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성분, 함량,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려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인재 판사는 “범행기간이 길고 횡수가 많은데다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대체 조제한 약품이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과 성분, 효능 등에서 같은 제품이고 잘못을 누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치선기자

당신의 부드러운
첫 술이
첫 술이
첫 술이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치러진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